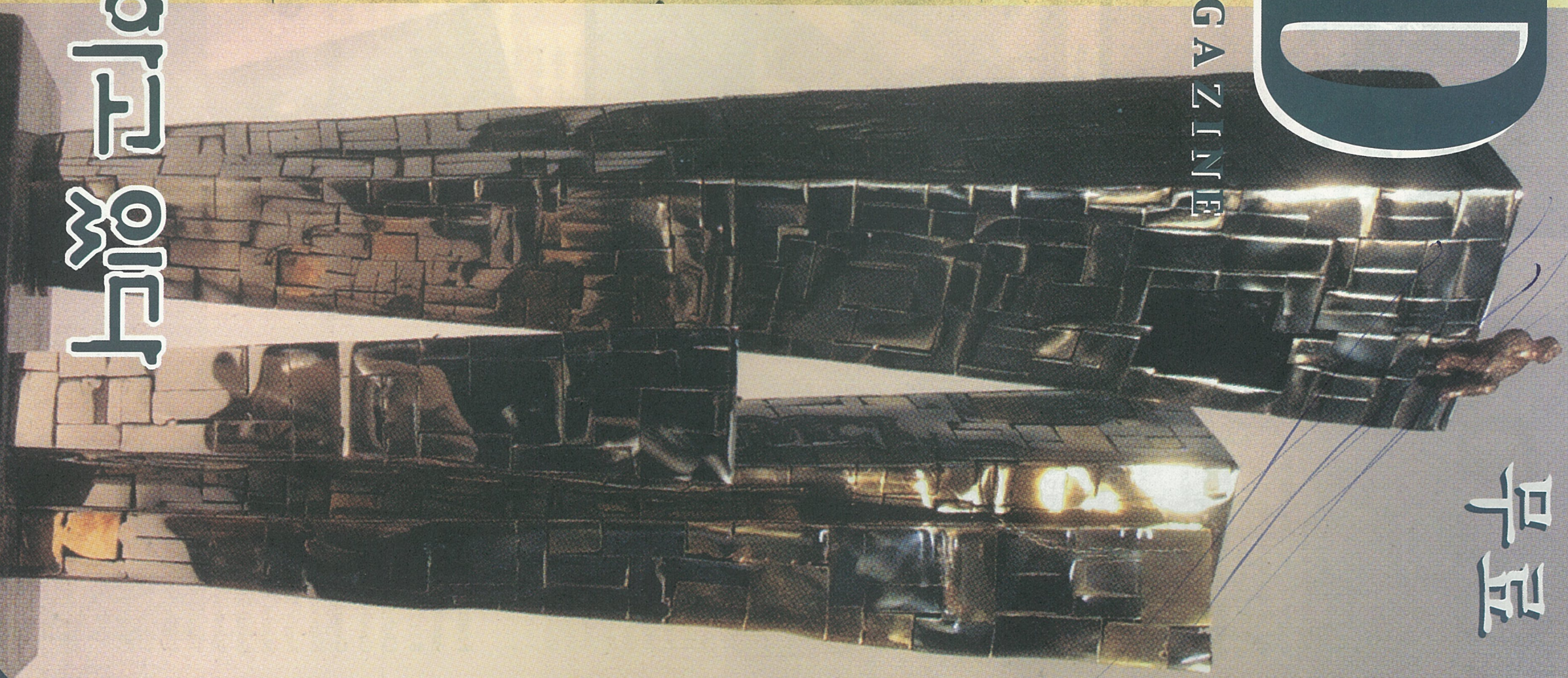


DD

A BILINGUAL MAGAZINE

무료

서태,
그것이 바로 그 것이다



Penthouse / 브라운, 스타인리 스타일

FREE

DDD is

Creator and Editor

Scott Liam Soper(스캇 리암 소퍼)

Associate Editor

John M. Rodgers(존 엠. 로저스)

Art design / Tech

Seung Moon Choe(채승문)

Jr. Associate editor

Dae Hyun Choi(최대현)

Layout

Kim Do Sung(김도성)

Intern

Julie Im(줄리 임)

Contributors

Aaron Clode (아론 클로드)

Andrew Baxter (앤드류 박스터)

Alix Tix (엘릭스 티스)

Byoung Hee Park(박병희)

Caroline Kim (캐롤라인 김)

Drew Keast (드류 키스트)

Fiona Jackson (피오나 잭슨)

Gyubang (구방)

Insu Park (박인수)

Jack Quin (잭 퀸)

Jay Lee (제이 라)

James Lee (제임스 리)

Je woon Lee (이재운)

Jean Brisbois (장 브리스보아스)

Joanne Park (조안 박)

Jung Il Seo (서정일)

Karen Hanna (카렌 한나)

Kari Shenk (카리 쉐нк)

So Hee Kim(김소희)

Mix Moon(믹스 문)

Nick Bausman (닉 바스맨)

Nigel Salvio (나이젤 살비오)

Sarah Choi (세라 최)

Sohee Park (박소희)

Tahl Gitter (탈 기터)

Vincent Sung (빈센트 성)

Woo Jung Kim (김우정)

Yeon Hee Im (임연희)

Young Bok Kim (김영복)

Freinds

Amnesty International

B H Productions

Club Day

Green Party Korea

Gwangju Biennale

Nanoom Communication

Neity Design Company

Nexus Books

Seoul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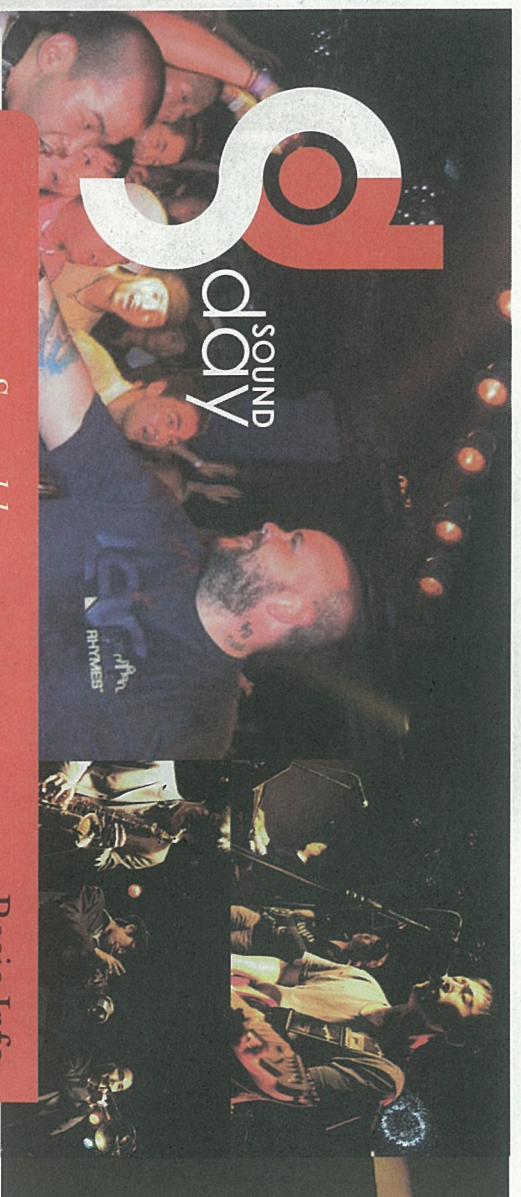
Subway Sandwhich

Toastmasters (Gangman)

What the Book

Work 'n' Pl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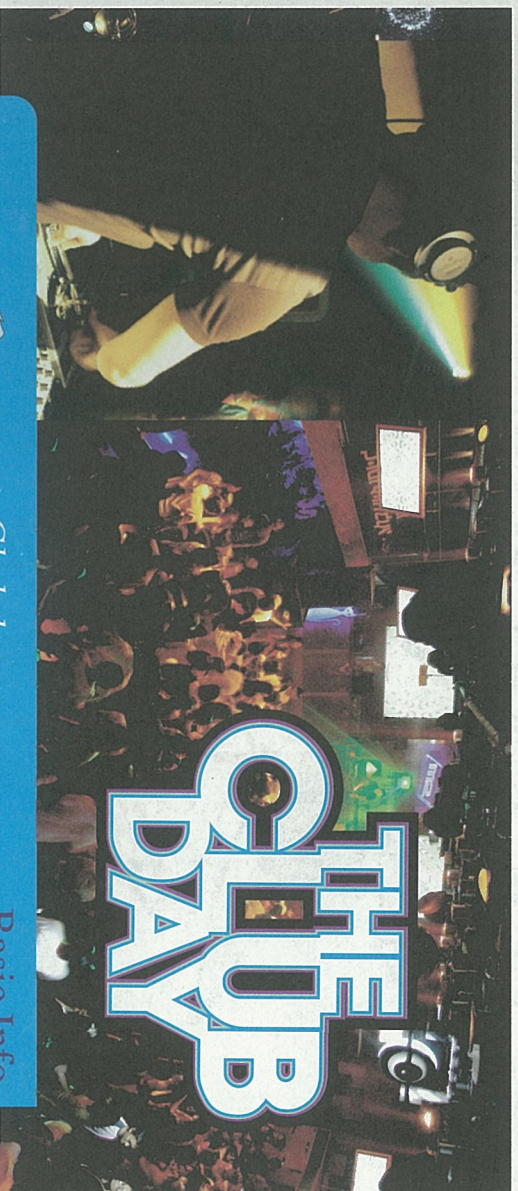
Copyright © DDD 2005. All rights reserved.



Soundday

when The second friday of every month
time 8pm-5am
where Soundday 10 Clubs
entrance fee 15,000 won {includes 1 free drink}
www.soundda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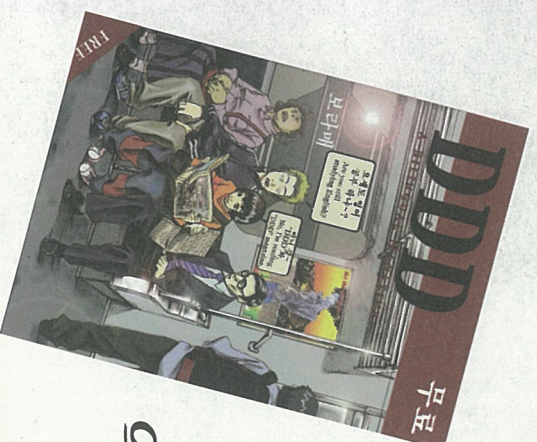
Basic Info.



Clubday

when The last friday of every month
time 9pm-5am
where Clubday 14 Clubs
entrance fee 15,000 won {includes 1 free drink}
Must have I.D. to enter
www.clubculture.or.kr

Basic Inf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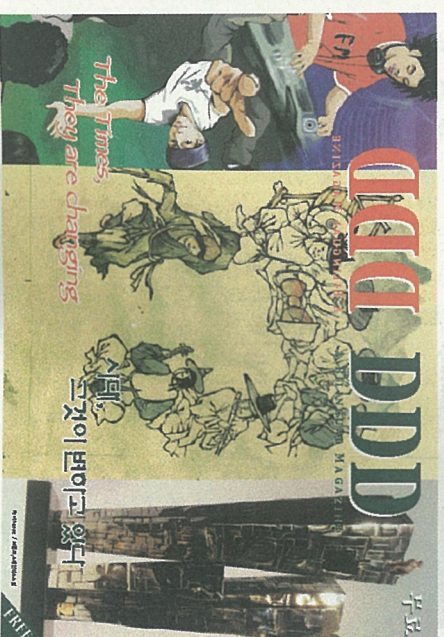
DDD잡지는 영어와 한국어로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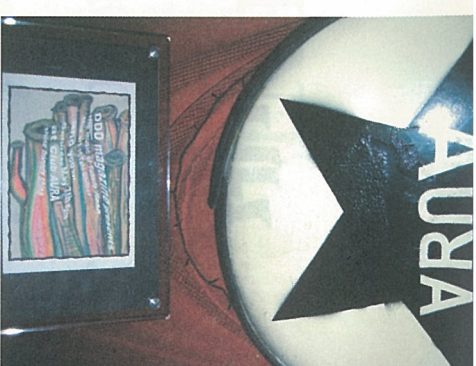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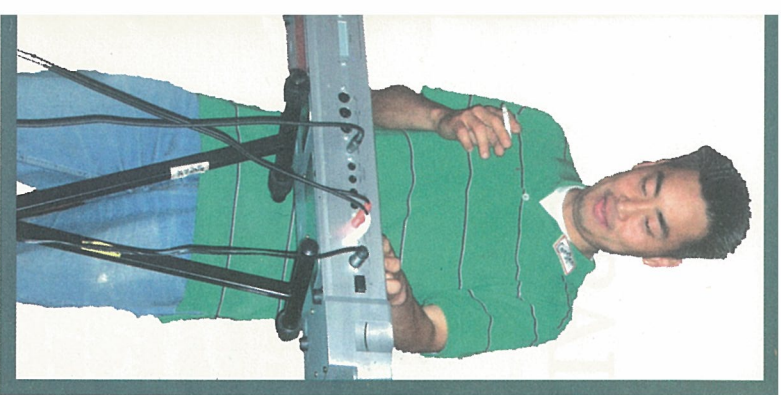
행되는, 이종언이 무가치로서 한국

의 문화와 세계문화와의 이해와 교류

의 폭을 넓히는데 함께할 퍼블리싱 파

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Welcome to DDD 환영합니다

by John M. Rodgers
존 엠 로저스

We here at DDD welcome you to another worthy issue. Since the

last installment an abundance of good karma has ridden in on spring's wings and we remain as ambitious as ever. As each issue changes with the evolution of DDD, our own passion never falls to the wayside.

The pages before you present DDD's usual explorative foray of stories starting with a firsthand look inside an organization with cult characteristics. As is often the case, we leave it up to you to decide.

An aspiring young Korean journalist and a veteran Australian activist serve up a thorough overview of the Korea Greens in another piece where politics meets strong environmental activism. Can Korea's corporate greed and economic need step aside to allow room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The heart of this issue is the poetry special where we combine a wide range of voices, both Korean and foreign, with the sculptures of Hongik Graduate students; and so the wine is poured. The Korean Creative Thinking section has the editor of the Konkuk Bulletin examining the being of an individual and the effort of taking things seriously. Next, the diary entry of



다. 여러분 앞에 놓인 페이지들은 쿨트 성격의 어느 집단 내부에서의 직접 목적담을 시작으로, 예의 그 탐험적 이야기/들을 보여 드릴 것입니다. 종종 그렇듯, 저희는 결론을 여러분께 맡깁니다. 그 뒤에는 서울에서 열린 라이브 록 장면에 대한 매우 멋진 글을 만나실 것입니다.

또 다른 글에서는 한 아심 찬 젊은 한국의 언론인과, 베레랑 호주인 활동가가 정치가 강력한 환경 운동과 만나는 곳인 한국 녹색 연합에 대한 철저한 개관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과연 한국의 기업들의 탐욕과 경제적 요구가 환경 보호라는 명분이 들어설 자리를 내어줄 수 있을까요?

이번 호의 핵심은 저희가 한국과 외국의 다양한 목소리를 빚어 엮어낸 시 특집으로서 홍익대 대학원생들의 조각 작품이 함께 게재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병에 담겨진 와인처럼 시가 쏟아져 나온것이죠. 한국 창의적 사고력 분야에서는 건국대 신문의 편집자의 개인으로서의 실존과 사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고찰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an English teacher gives a glimpse at a controversial situation?criminal or activist?

The Gang of 4 returns with a visit to a dog cafe where owners pamper their pets while mingling with others who enjoy this latest craze. The latest student contribution has one Korean student questioning the motivations of a fellow student in the Student Writing section. What inspires maniacal studying?

The dosing Style Page compares and contrasts Jeju's rustic landscape, Seoul's modern graffiti and the glamorous stages of Seoul's Spring Fashion Show 2005?Country, City and Catwalk meet. Thrown into the mix is an engaging crossword puzzle that serves our desire to provide further language building. We hope that your journey through this issue's pages will leave you fulfilled yet still curious and eager for our next. As well, stay tuned to WWW.lifeinkorea for future event postings and further features.

On a final note, we extend our thanks to Tabula Rasa, Amnesty International, LINK, Korea Greens, Aura Bar and all of the faithful revelers who made our May gathering an enjoyable success. This page's pictures are from that night. No, the baby wasn't there but is Hyung-seok Seo, the recently born son of our web designer and good friend, Jeong-il Seo and his wife, Hye-sun Lee. Congratulations!



논쟁적 상황을 바라보는 한 영어 교사의 일기가 실려 있습니다—— 범죄자인가, 활동가인가?

한 개 카페에서 주인들이 이 최신 유행을 즐기는 다른 이들과 어울리는 동안 자신들의 애완 동물을 방치하는 현장을 우리의 4인조가 방문하는 목적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학생 작품 분야에서는 최신 학생 기고로서 한 학생이 동료 학생의 동기를 묻는 글이 실려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광적으로 공부하게 하는 거니?

마지막 스테일 페이지에서는 제주도의 전원적 풍경과, 서울의 현대적 그래피티, 그리고2005 서울 봄 패션쇼의 매혹적 무대를 비교, 대조하는 글이 실립니다.—— 전원, 도시, 무대의 만남이죠. 어리본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모든 게재물을 함께 어울려 준비한 흥미로운 낱말 맞추기도 실려있습니다. 이번 호를 순례하는 여러분의 여행이 여러분을 만족시켜드림과 동시에, 다음 호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를 남겨드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행사의 안내와 정보를 원하시면 안제는 WWW.lifeinkorea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사면 위원회의 Tabula Rasa, LINK, 한국 녹색 연합, Aura Bar, 그리고 저희의 5월 모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준 충실한 애주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전합니다. 이 페이지의 사진은 그날 밤의 한 장면입니다. 그때는 아기가 없었지만, 최근 우리의 좋은 친구 이자 웹 디자이너인 서 정일 씨와 그의 아내 이 혜선 씨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JNEITY
Korean Community

DDD magazine wants
Koreans and foreigners
who like to

draw,
write,
translate,
animate,
and
other creative things.
How do you want to be involved?

Contact dddlifeinkorea@yahoo.com

DDD magazine은
알리스트나,
애니메이션,
번역,
편집,
기사 작성 등

창조적 활동에 관심이 있는 문화인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DDD활동에 참여 하시려면

dddlifeinkorea@yahoo.com으로 연락 주세요.

세뇌 혹은 깨달음

회고록...

나의 한국인 친구와 함께 단학 선원 안으로 들어간 우리는 즉시 초자연적인 세계로 들어온 느낌을 받았다. 커다랗고 주목을 끄는 인상적인 벽화가 벽의 한면을 채우고 있었는데 이것은 한민족의 시조라 할 수 있는 단군이 태어났다고 주장되는 북한산의 산맥이 햇빛을 받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단학 선원의 회원들은 완전히 이방인인 나를 웃는 얼굴로 친근하게 대했다. 선원 안에 있는 그들의 하얀 한복 (하얀색은 순수함의 상징이다)에는 4335라는 알 수 없는 숫자가 써 있었고, 이것은 나중에 단학 달력에서 찾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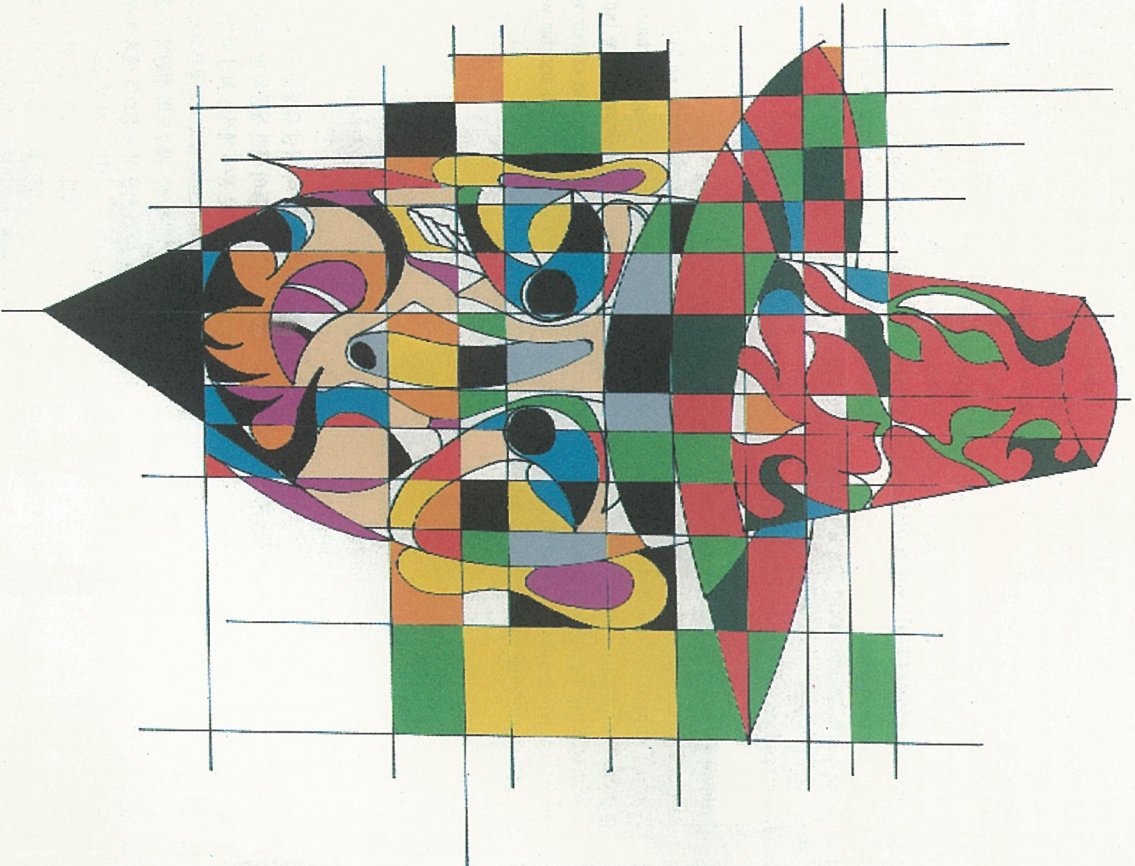
단학의 몇몇의 회원들이 나에게 영어로 “이 옷을 입는 것이 한거지에 집중하는 것을 도와줍니다”라고 말해줬다. 내 친구는 어디론가 떠났고 나는 그것을 입었다. 선으로부터 나에 대한 남치는 관심이 마치 내가 그 그룹의 일원이 된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다.

단학(단이라고 줄여서 말하겠)은 할기 남치는 수련과정(정)을 제공해 주었다. 우리는 배의 이렛 부분(단전이라고 말함)을 손으로 살살 치기 시작했고, 스트레칭을 한 후 목과 어깨부분을 살짝 풀어주고 엄격한 타이치 스타일의 운동을 따라 했다. 마지막으로 명상과 함께 마사지를 받았다. 몸이 약간은 쉬시는 듯 했지만 편안해지고 행복해졌다.

수업이 끝나고, 나의 친구가 치를 마사지 받으며 다지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 다시 나타났다. 나는 항상 가까운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에 공유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들어왔다. 이 경우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경험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알게 하는 것이다. 무엇이 당신을 귀찮게 하는가? 당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당신은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았는가?

내가 너무 앞서 나가서 생각하는 것 같다. 외향적이고 활발한 내 친구는 나를 단의 회원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단의 설립자는 일지(진리를 가리킨다)라고 불리는 이승현이다. 그는 인기 있는 많은 책을 저술하였고, 수백개가 넘는 단 센터를 열었으며 국제적으로도 많은 일과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일지는 자연적인 치료 방법과 정신적인 깨달음으로써 뇌를 사용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우리들이 그의 단학 수련법과 뇌 호흡 법을 수련하는 것이 어른들과 어린이들의 뇌를 치료하고 강화시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도 중시 한다고 믿기를 바란다. 일지 리에 의해 발전된 프로그램인 뇌 호흡법, 단학 그리고 명상 수련 법은 매우 지치고 아렸을 적의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뇌 과학과 연계되어서 나에게 다가왔다

동양적인 수련과 명상을 통하여 깨달음을 찾는다는 것이 평범하지는 않지만, 단학 선원에서의 깨달음에 접근하는 방식은 마치 나에게는 종교자 시장에서 치를 파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선사들은 회원들에게 단계별 깨달음을 얻는 수업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 상품들, 그리고 일지의 책을 구매하도록 만들었다. 몇 천 달러나 혹은 수천 만 달러의 돈을 쓰면 정신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



터 토요일까지 원하는 바로 그것이었다. 단의 새로운 회원들은 평화와 사랑의 충민함을 얻게 되었다. 선원 안에서 사는 우리의 선사님은 항상 격려를 해 주셨다. 회원들은 음식이나 식물들을 선물로 가져와서 보답하고 싶어했다. -항상 단 선사님들께 작은 것이라도 가져옴으로써 감사를 드렸다. 선사님들과 학생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매 여섯 달마다 선생님들의 재배치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자주 파리를 열었다. 일지 리, 그의 목표에 따르면 모든 회생은 반드시 보상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나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수행 달이 끝나고 나는 나의 자국이 된 친구의 보증을 믿고 싶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나는 여전히 내가 나의 진실된 도착지로 가기 위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교묘히 잘 대처해 간다고 믿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 나는 단에서의 심정 훈련에 대해 동의 한다. 우리는 호텔에 머무르고 깨달음으로 향하는 첫 번째 큰 내딛음을 위하여 각 300달러를 지불했다. 선사님들은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비말로 지기기를 원하셨다. 아무도 우리가 저녁부터 아침까지 소리를 지르거나, 단을 위해 헌신하는 5년 계획, 그리고 파트너에게 우리의 가장 힘든 고통을 말하고 결국에는 눈물을 적게 흘리는 것에 대해 알아내지 못했다.

“신의 소용들이치는 정기가 느껴지지 않느냐?”

는 것일까? “New Human Training”은 1500달러, “World Lifetime Membership”은 3000달러, “Healer School training”은 10000달러가 필요하다. “Ancestor Liberation Ceremony”를 위해서는 20000달러가 필요하다. 지금 지불할 수 없는가? 단 신용카드에 싸인을 하고 나중에 지불해라. 당신이 지불하고 나면, 환불은 가능하지 않다.

단의 회원들은 누구나 1억명의 단 치료사들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데 매우 열성적이고, 2010년까지 삼만 육천개의 (백도날드 보다 만개나 더 많다) 선원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미스터 리에 의하면, 1억명의 세계평화를 위해 영향을 끼치는 단 마스터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리의 많은 헌납자들이 그들의 평범한 삶과 직업,가족 그리고 친구들을 포기하고 오로지 그들의 희망이자 꿈인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만을 추구한다. 포리를 위해 열정적으로 돈을 모으고, 그의 사업 파트너로써 지구를 치료하고 금방이라도 다칠 위험을 방지한다.

내가 또다시 앞서 나가서 생각하는 것일까? 나는 나의 새로운 친구들과 평화로운 날 동안에 수련을 하면서 기쁨을 느꼈다. 우리 일군의 밝은 웃음들:우리는 농담을 나눴고, 이것은 우리가 월요일부

나는 회원들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매우 놀랐다. 동양 철학에서는 앞에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나의 선사님이 말씀하셨다. 만약 내가 원한다면 내 친구로부터 단의 마스터들이 천 번이나 혹은 하루에 그 이상의 헌신적인 절을 하는 사원으로 옮길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 보

았다. 일지 리는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나는 눈을 감고 계속적인 공상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깨어있거나 꿈속에서도 항상 조용히 하라는 같은 목소리를 듣는다. 나는 나의 인생의 총 여섯 달 동안 부정적인 집단 안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았다. 함께 아라조나주에 있는 세도나라는 도시에 가서 함께 공부할 것을 생각해왔던 나의 친구는 화가 나서 “나는 아직 깨달음을 얻을 준비가 될 뻔했다”고 말했다. 만약 때때로 자각하지 못하거나 개인의 깨달음을 잃었다면 그녀의 말이 맞을 것이다. 나는 내가 눈을 감을 때 마다 일지 리가 깨달음을 얻은 모약선에 그녀와 함께 있다고 상상에 본다.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신의 소용들이치는 정기가 느껴지지 않느냐?”고 물어봤다.

Julie is on her way to study journalism in America
The writer is now teaching English outside of Seoul.
He wishes to remain anonymous.
Contact addlifeinkorea@yahoo.com



BRAINWASHING OR ENLIGHTENMENT

A memo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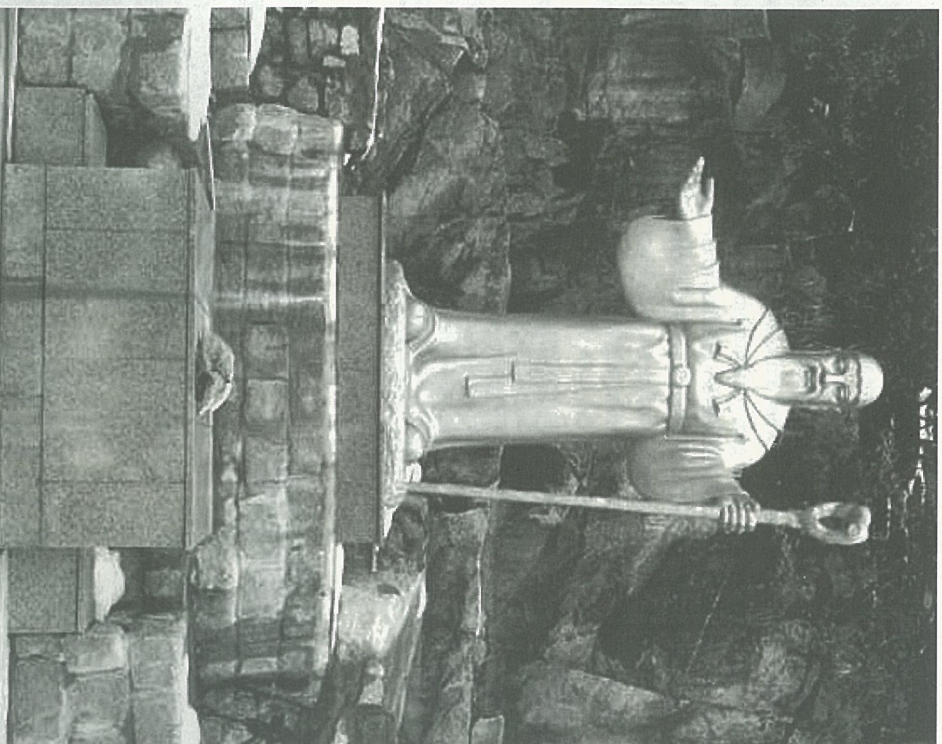
Being inside the Dahnhak center with my Korean friend we immediately feel otherworldly. An enormous, striking mural covered one wall—a sunlit North Korean mountain range depicting the alleged birthplace of the Korean founder Dangun. Community members smile and continuously act friendly to me, a complete stranger. Their white hanbok (white is a symbol of purity) mysteriously bear the number 4335 in the center, which I later found out is from the Dahnhak calendar. Some members of Dahnhak tell me in English, “Wearing this outfit helps one to focus.” My friend leaves and I put one on. An outpouring of loving attention from the master instructors to me was offered and I began to feel like one of the group.

The Dahnhak (Dahn for short) retreat provided a vigorous workout. We began by playfully slapping our lower parts of the stomach (“Dahn-jon”), then stretches, neck and shoulders warm-ups, followed by rigorous Tai Chi style exercises, capped off with a pleasant meditation and soothing massage. I am sore but relaxed and happy.

After the session, my friend reappeared for Dahn’s customary tea and social time. I have always heard that close relationships naturally form amongst people with a shared purpose: in this case the quest for enlightenment. Here experienced teachers begin to get to know you: what makes you tick? What are your strengths and weaknesses? Are you emotionally wounded?

But I am getting ahead of myself. An outgoing and upbeat friend of mine decided to recruit me to become a member to join Dahn. The founder of Dahn is Seung Heun Lee, who named himself Ilchi (a finger pointing to the truth). He has authored numerous popular books on the subject and launched hundreds of Dahn centers and other businesses and organizations internationally. Ilchi has a vision of the brain as a natural medicine chest, and as the means to spiritual enlightenment. He wants us to believe that his Dahnhak and Brain Respiration programs hold the key, not only to healing and enhancing the brains of adults and children, but to world peace. Healing the brain takes patience and understanding and the Dahnhak and Brain Respiration, programs developed by Ilchi Lee, appealed to me as a continuation of the very brain science that had helped me as a very depressed and awkward child.

Seeking enlightenment through Eastern exercise and meditation is not unusual, but the used car sales approach to enlightenment at the Dahn center started to



“Don’t you feel the energy of the mountain’s vortex?”

far my sensibilities. Instructors pushed community members to purchase ever-increasing levels of enlightenment courses, costly healing products, and Ilchi’s books. Many people have reported getting in over their heads, softened by the loving environment and the fantastic workouts. After all, what’s a few thousand, or tens of thousands of dollars, for spiritual “enlightenment?” The costs run: \$1,500 to take “New Human Training”. \$3,000 for a “World Lifetime Membership”. \$10,000 for “Healer School training”. For \$20,000, you can receive an “Ancestor Liberation Ceremony”. Can’t afford it now? Sign up for a Dahn credit card and pay later. And pay, you will, Dahn does not issue refunds.

All who join Dahn are expected to fervently recruit new members to reach a goal of 100 million Dahn healers and 36,000 centers by 2010 (10,000 more than McDonalds). According to Lee, 100 million enlightened Dahn masters are needed to effect a shift in global consciousness toward world peace. Thus, with a sense of urgency, a growing number of Lee’s devotees give up their former lives, their careers, families, and friends, their hopes and dreams to become “new humans,” to fervently raise money for Lee and his business partners to heal the planet and prevent imminent collapse.

But am I getting ahead of myself again? I delighted in exercising during those peaceful days with my new friends. Smiles brightened our faces; we shared jokes, 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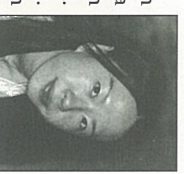
this was where we wanted to be Monday to Saturday. Each new person in Dahn gets a peaceful, “love-bombing” Our teacher, who was required to live in the center, always offered kind words of encouragement. Members reciprocated by bringing gifts of food and plants—always appreciated by grossly underpaid Dahn teachers. We held frequent going-away parties, as Dahn relocates its teachers about every six months, despite the teacher’s and students’ selfish wishes. Dahn doesn’t want their teachers becoming too attached to any person or place. All devotion must be reserved for Ilchi Lee and his goals.

After my second month and in spite of my doubts, I wanted to believe my now irritated friend’s assurances. Like most people, I still resisted believing I had been manipulated to take the wrong path to my true destiny. I agreed to take “Shim Sung” training at Dahn. We each paid around \$300, to stay four to a room at a hotel, to take our first big step towards enlightenment. Instructors insisted that we keep our experiences secret. No one was to find out how we screamed through the night into morning or wrote a five-year plan to devote ourselves to Dahn, and then told our deepest pain to an assigned partner and in the end, reduced to tears.

I started to ask community members questions and they were shocked. “Eastern philosophy should not face critical probing”, my instructor insisted. I was gently asked if I wanted to relocate away from my friend to a Buddhist temple where “Dahn masters have been known to do a thousand or more devotional bows a day.” Ilchi Lee teaches that knowledge is gained through physical pain. I don’t want that so later I am ordered to close my eyes for continuous dream instruction. I hear the same voices awake or in my sleep: “be quiet!” I begin to realize that I have been involved in a destructive group that took a total of six months out of my life. I am going to leave for good, but it won’t be easy. My friend, angry that her dreams of our studying together in Sedona, Arizona, are gone, tells me, “You’re not ready for enlightenment.” If mindless conformity and loss of individuality describe enlightenment, then she is right. When I close my eyes I imagine I am with her at Moak mountain where Ilchi Lee claims he found enlightenment. Her eyes brightening, she asks,

“Don’t you feel the energy of the mountain’s vortex?”

Julie is on her way to study journalism in America. The writer is now teaching English outside of Seoul. He wishes to remain anonymous. Contact: ddldlife@korea@yahoo.com



Roll Seoul Rock AND

by Jack Quin & Kim Woo Jung Translation by Kim Hyun Young

Sinchon, Exit 8, City of Seoul, Friday night, 9:11 pm - Alley cats and ajummas searching and settling on the spittle soaked sidewalk - standing room only at the dopokt carts and soju tents. The din (1) is thick with kerosene and the huff of traffic. I'm free but still searching for rock and roll Seoul and soon tumble live into Rolling Stone 2. Greeted by soft brown eyes, gypsy pip skirt (2) and a sweet bean smile, "Anyong Haey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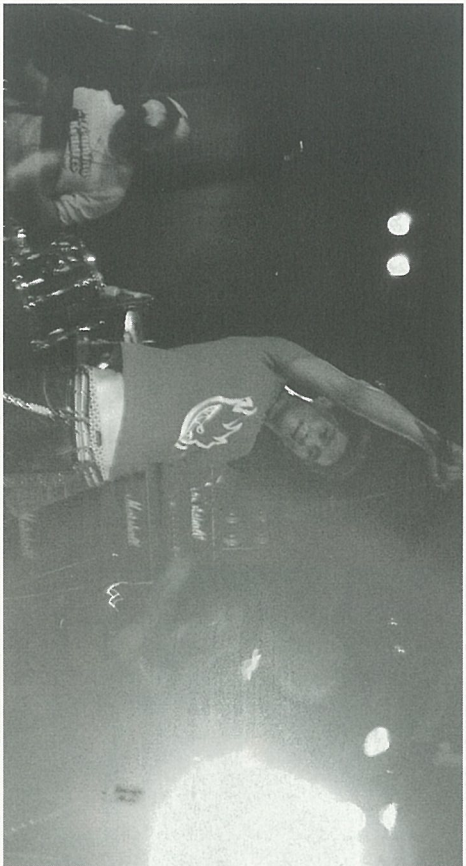
Rolling Stone 2 plugged in its first sound board in 1995. Since then hundreds of bands and thousands of fans have rocked on the checker board floor. Tonight there are five bands on the sandwich board (3) - Emotion, Cuba, Ultra Condition, Seed, Goldrush. I reckon I'll hear three. I already ate and I was late. Also, shows end early at Rolling Stone 2 and then the throng goes elsewhere for a drink. Its an all ages club - no liquor. Fugazi! Curb Lund! Hear! Hear!(4) Mr. Park June Young meets we mid stairway. He is friendly, modest, serene. We go back up the stairs, outdoors, to talk over tea. Meanwhile, indoors, a bass line double backs on itself, a singer stammers and a glitter gun guitar frets around (5). Mr. Park bought Rolling Stone 2 in 2004. He had played here for 8 years and when the club went up for sale he bought it "to keep it true to music." The move from the left of the front to the back on the right was smooth. Mr. Park is a music lover. There are some 579 bands around the Hongdae and Sinchon neighborhoods he

says, about 100 or so are actively gigging(6). He has listened to most of them and seen a lot of them. "Before anyone plays the club. I listen to their demo (7) and they audition." He listens because he wants to offer diversity. He also wants top talent. "Are many of the bands rock and roll bands?", I ask. "Some are." "Has anyone made it?" "Yes," he says with a smile.

Indeed, some of Rolling Stone 2's alumni have gone on to ROC(k) stadium including Cherry Filter. Intuitively I'm not surprised and yet I am. This is Core-land of the download, manic MP3ers and nearly as many pink sex synth pop gyrating crying choirs (8) as there are StarCrappit players. Moreover, in the year since I've been lucky to call Corea home, I've not yet tuned in on a Corean rock and roll radio station. I find out it's because the only regular radio show that plays Corean rock airs nightly between 6pm and 8 pm at 91.9 FM with DJ, Bae Chul Su, when I'm out. I also find out there are some church programs that play rock during their satellite sermons because Jesus is a rock and a roller. And with more and more bars opting for canned music and Dud (10) the lights on stage are dimming. But, this too shall pass. Rock and roll will never die as long as people like Mr. Park and you keep living it and loving it.

THREE X THREE

- | | | |
|---|---|---|
| (1) din - loud unpleasant noise | (5) glitter gun guitar frets around - a shiny guitar being played quickly/frets are the metal strips on the neck of the guitar | (9) but it was all too much and the plastic was wax-her company lost a lot of money - the credit card melted |
| (2) gypsy pip skirt - colorful free flowing skirt with sequins | (6) gigging - musicians playing | (10) canned music and Dud - recorded music and a misspelled reference to an American beer |
| (3) sandwich board - a sidewalk sign that advertises attractions | (7) demo - a promotional demonstration recording of the musicians singing/entertainers that have choreographed dance routines, computer generated music, style advisers and little hope for | Editor's note: This piece can be read in full on www.lifesinseoul.org |
| (4) Fugazi! Curb Lund! - two rock and roll bands from North America | | |



관객들여러분

by Jack Quin & Kim Woo Jung Translation by Kim Hyun Young

금요일 밤, 저녁 9시, 신촌역 8번 출구. 지하철도는 그들의 험악운 잠들을 가볍게 하면서 오고 가기를 반복한다. 침으로 가득 찼은 거리에서는, 도둑 고양이들과 아줌마들이 겨우 서있을 만큼의 자리가 있는 딱딱이 수레와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찾고 그리고 팔고 있다. 불쾌한 소음은 동유와 교통의 잠을 만끽이나 두렵다 나는 자유롭지만 여전히 서울의 타엔들을 찾고 있었고, 곧 부드러운 갈색의 눈들과 짐시풍의 금속장식이 있는 치마와 달콤한 미소로 맞이하는 롤링스톤2와 마주치게 된다. "안녕하세요."

롤링스톤2는 1995년에 첫 음향장치에 전선을 연결하였다. 그로부터 수백 개의 밴드들과 수 천명의 팬들이 체커 무늬의 바닥에서 락을 연주하여 왔다. 오늘날 알람 판 위에는 5개의 밴드가 있다. - 이모터로, 쿠버, 울트라 컨디션 씨드, 골드러쉬 나는 그 중 3개의 밴드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추정해본다 나는 이미 식사를 했고 늦었다 또한, 롤링스톤2에서는 공연이 일찍 끝난다. 그리고 나서 그 군중들은 술을 마시기 위해 어딘가로 간다. 이곳은 모든 연령층 클럽이다. 음주금지 그리고 미국의 밴드 Fugazi! Curb Lund! 처럼, 들리는가. 이곳이. 박준영씨는 나를 계단 중앙에서 환영했다. 그는 다정하고, 겸손하고, 차분하다 우리는 올라가서 계단의 뒤쪽으로 올라가, 밖으로 나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그 동안, 클럽 안에서는 베이스 음들이 거꾸로 연주되고, 가수는 더듬거리고 기타는 빠른 속도로 정신없이 연주되고 있다. 박준영씨는 2004년에 롤링스톤2를 인수하였다. 그는 여기서 8년을 연주했었고, 그곳이 새로운 주인이 필요할 때 "음악의 순수성을 지키

THREE X TH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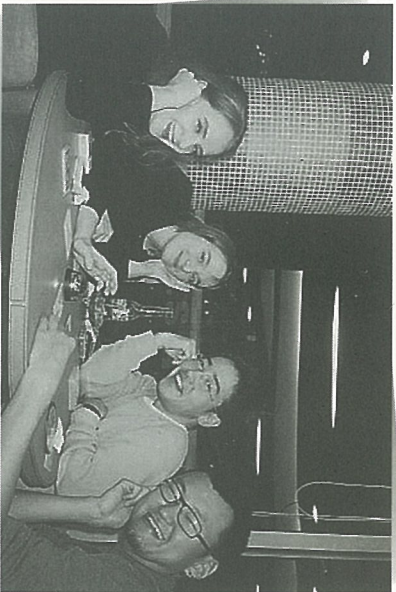
- | | |
|----------------------------|---|
| (1) 크고 기분나쁜 소음 | (5) 연주하고 있는 음악가들 |
| (2) 금속 장식을 한 다채로운 색깔의 긴 치마 | (6) 판촉용의 음악가들의 녹음 |
| (3) 양면으로 된 길에 세워두는 광고판 | (8) 유행하는 춤, 컴퓨터가 만든 음악, 행동 양식 과 재회 순회 공연의 회망이 거의 없는 만 |
| (4) 북 아메리카에서 온 2개의 락엔들 밴드 | 돌아선 젊고 대중적인 노래하는 연예인 |
| (5) 현대에게 연주되는 빛나는 기타 | (9) 그대의 외사는 많은 돈을 잃었다 - 신용카드가 녹았다 |
| | (10) 녹음된 음악과 미국의 락주를 절망된 철자로 언급한 |

기 위해서"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의 움직임은 부드럽라웠다. 박 선생은 음악 애호가이다. 홍대와 신촌일대에 579개의 밴드가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 중 약 100여 개의 밴드들이 활발하게 공연 중이다. 그는 그들의 거의 모든 음악 들어왔고, 많은 이들을 보아왔다. "누군든지 우리 클럽에서 연주 하기 전에, 저는 그들의 데모 음반을 듣고 오디션을 합니다." 그는 음악의 다양성을 제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다. 그는 또한 최고의 재능을 원한다. "많은 밴드들이 락엔들 밴드가요?" 나는 묻는다. "몇몇은 그래요." "성공적인 밴드도 있었나요?" "예" 그는 미소를 띠 채 말한다.

정말로, 롤링스톤2의 졸업생들 중에서 체리 필터(Cherry Filter)를 포함하여 몇몇은 한국의 스타의 위치에 올랐다. 직관적으로 나는 놀라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놀란다. 여기는 한국-다 운로드의 천국, 열광적인 MP3사용자들 그리고 거의의 스타 크레프트 경기가 수 만명의 젊은 인기 가수 연예인들이 있다. 거기마다가, 내가 한국을 '고향'으로 부르게 된 행운의 해에도, 나는 단 하나만의 락엔들 라디오 방송조차도 알 수가 없었다. 그것은 내가 주로 외부에 있는 시간일 때, 한국의 락이 유일하게 밤 6시부터 8시까지 91.9 FM방송 DJ 배철수에 의해서 방송되기 때문 인 것을 나는 안다. (나는 또한 예수가 반항아 이자 이단아 이므로 몇몇의 교회 위성 강연에서 락을 연주하는 것을 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바들이 녹음된 음악들을 선택함에 따라서 무대의 불빛들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간다. 그러나 이런 암울한 시간도 역시 끝 날 것이다. 락엔들은 박준영씨와 당시 같은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Go4의 애견 카페 방문기

The GANG OF FOUR (Go4)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dddlifeinkorea@yahoo.com로 문의하십시오.



는 이들의 애완 카페를 향한다.

문을 열자 맨 처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틀림없는 게 특유의 냄새이다.

이어서 안쪽 보이도 약스무마리쯤 되는 귀여운 개들이 환영 위원회인 양 우리를 향해 시끄럽게 짖으며 달려온다. 우리가 자리를 잡자 다른 개들을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도록 만드는 덩치 큰 녀석인 벡은 곧바로 우리 테이블 아래로 숨어들어간다. 우리 주변에는 개들이 소파나 창턱에 늘어져 쉬고 있거나, 카운터에 뒹다리로 서 있다.

카렌: 어진 정말 재미있는 곳이에요. 아이구, 불쌍한 벡, 겁을 먹었어요.

제이: 벡은 다른 개들하고 어울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많이 타죠.

피오나: 우와, 왜 제네들이 서로 싸우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마커스: 글썄요. 제 생각에 저 개들 중 대부분은 손님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카페에 살아서 서로 아는 걸 거예요. 하지만 자기 있는 저 분한테 여쭙습니다. 주인인 것 같은데요.

한 국인과 외국인인 우정과 언어 교활을 도모하고자 'DDD'에서는 Gang of Four를 마련하였습니다. 생기 있고 재미있는 것들을 방 문하여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언어로 일상 생활에 유용한 대화를 나눌 보는 지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Go4가 홍익대학교 근처에 있는 애완견 카페를 찾아갑니다.

오늘은 전형적인 토요일 밤이다. 미로처럼 복잡한 거리는 상인들과 바를 찾는 손님들로 왁자지껄하다. 우리는 버버리 자켓으로 차정하고 프라푸치노를 활어먹는 귀여운 개들이 있을 것만 같은 '애완 카페'라는 곳에 흥미를 느낀다.

호주에서 온 피오나, 광주에서 온 마커스, 스코틀랜드 출신 카렌과 서울에 살고 있는 제이, 그리고 커다란 버니즈 마운틴 도그인 벡은 '바우하우스'라

각하해요?
정진우: 바우하우스에서는 연애와 짝짓기는 엄격히 금지된 사항입니다. 여기 사는 수컷은 모두 거세되었고, 발정기에 있는 암컷은 출입이 제한됩니다. 이 개들은 그냥 친구로만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마커스: 하지만 자기 군중 통제용 도그 좀 보세요 (허벅지 끝에 플라스틱 병을 붙여 놓은 거대한 마더기를 가리킨다. 이는 개들을 쫓는 데 쓰는 마더기이다)

OFF TO THE DOG CAFE with the Gang of Four

ARE YOU INTERESTED IN BEING PART OF THE GANG OF FOUR (Go4)... contact dddlifeinkorea@yahoo.com

In order to explore friendship between Koreans and foreigners and to help with studying English and Korean, "DDD" offers the Gang of Four. A practical chat in an interesting place exploring the REAL WORLD WITH REAL LANGUAGE. In this edition the Go4 head to a 'dog cafe' in Hongik University area.

It's a typical Saturday night. The maze of streets are buzzing with street vendors, and bar hoppers. We are intrigued by the idea of a 'dog cafe' with cutey poodies sporting Burberry jackets and lapping their frappuccinos.

Fiona from Australia, Marcus from Gwangju, Karen from Scotland, Jay from Seoul and BECK a huge Bernese Mountain dog are on their way in to 'dog cafe' Baulhaus.

When the doors slide open the first thing that hits us is an unmis-

t a k -



able canine aroma, closely followed by about twenty psyched up, curious dogs who rush over to be our noisy welcoming committee. We grab a table, which BECK, who dwants all the other dogs, immediately dives under. Around us, dogs are lounging on sofas and windowsills or standing on their hind legs at the food counter.
Karen: This place is hilarious. Oh poor BECK - he's terrified.
Jay: He hasn't socialized with other dogs much before, so he's very shy.
Fiona: Wow. I can't understand why they aren't fighting with each other.
Marcus: Well, I think the majority of the dogs aren't customers. They live here at the cafe so they know each other. But lets ask that guy over there - I think he's in charge.
Baulhaus Cafe owner Jeong Jin Woo: I'm a dog lover, but raising a dog in Korea is difficult. You can't just pop off to a local park or take your dog shopping with you. At Baulhaus, they can relax, hang out with their owners and be with other dogs.
Jay: We're hoping to fix BECK up with a girlfriend tonight. What do you think?

Jeong Jin Woo: Romance and coupling is strictly forbidden at Baulhaus. All of the male dogs that live here are usually spayed and female dogs on heat aren't allowed in. They only like each other as friends.

Marcus: But check out that crowd controller thing (pointing to a long stick with a plastic bottle taped to the end, used to discipline the dogs).

Fiona: I need one of those for my students!

피오나: 지도 학생들 별을 때 쓰게 저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제이: 벡은 여기에서 사교에 있어서 그다지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군요. 저 장난감 같이 작은 개들은 벡에게는 마치 패션 액세서리로나 보이나 봐요. 다른 개들은 '공 물어오기' 쇼를 하고 있지만 우리 벡은 아직도 테이블 아래에 숨어만 있다. 호기심 강한 개 한 마리가 가까이 와서 벡의 머리를 건드려 본다. 우리가 스낵을 조금 시키자 군중이 관심을 보인다. 조그만 코 키스페니얼 한 마리가 카렌의 배낭 위로 올라와 몸을 웅크리고는 섹씩 잡힌다.

마커스: 바우하우스가 일종의 '오타쿠'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시적 유행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열정을 일컫는 '오타쿠' 말이에요.

정진우: 예, 한국에도 '유행 마니아'들이 있고, 바우하우스가 그 일종인 것도 맞아요. 하지만 저희는 사람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요. 그래서 저희는 애견 미용 살롱도 마련했고, 애견 의에서 리도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견 호텔도 열 계획 중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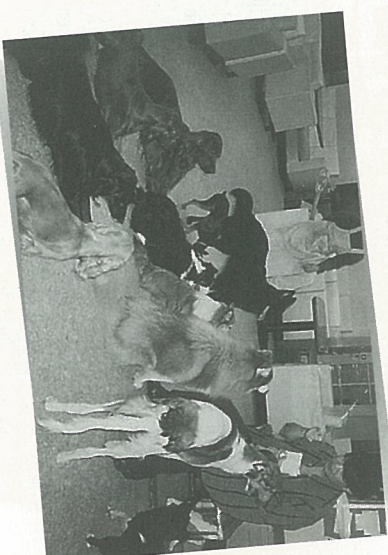
마커스: 당신을 나라는 어떤가요? 거기에도 애견 카페가 있습니까?

카렌: 아니요. 하지만 사람들이 초고속 테이트를 즐기는 바는 몇 군데 문을 열었어요. 그들 테이트를 위해서 대규모의 사람들이 몰려오지요. 그 날 버가 문을 닫을 즈음에는 당신이 관심 있다고 짝은 사람도 당신을 관심 대상으로 지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피오나: 여기만큼 로맨틱한 곳 같은데요!

마침내 벡이 귀여운 개 한 마리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제이: 벡이 이제야 군중과 어울리려 하는 것 같군요. 벡이 이리로 이사 와서 이 중 한 마리와 테이트를 시작하겠다고 나서기 전에 그만 일어납시다. 카렌은 그 귀엽게 잠들어 있는 개를 가방에 넣어 오고 싶은 충동을 이겨낸다. 카페의 개들과 손님들이 토요일 밤을 즐기는 것을 뒤로 한 채 우리는 밖으로 나옵니다.



Jay: BECK isn't making much social progress here. A lot of these fun size dogs are fashion accessories to him.

The other dogs are doing a 'catch the ball' show, but our BECK is still hiding under the table. Another dog comes over and curiously nudges at his head. We order some snacks, which attract a crowd. A small cocker spaniel curls up on Karen's backpack and falls sound asleep.

Marcus: Do you think Baulhaus is part of 'ottaku', which is a Japanese word describing their enthusiasm for faddish trends?

Jeong Jin Woo: Yes 'fad mania' does exist in Korea and Baulhaus is a part of that. But we want to create a service that will keep people interested. So we have a dog beauty salon, sell accessories and are planning a doggie hotel.

Marcus: How about you guys? Are there dog cafes in your countries?
Karen: No, but there are a few speed dating cafe bars for people that have opened. They get a big group of people together for a group date. At the end of the night you see if the same person you checked has also checked interest in you.

Fiona: Sounds as romantic as this place!

Eventually, BECK starts to take an interest in a cutie pooch.
Jay: It looks like he's with the crowd now. Let's go before he decides to move in and make a move on one.

Karen resists the temptation to slip the cute sleeping dog in her bag and we head out, leaving the cafe dogs and their guests to enjoy their Saturday night.



HOPE FOR A GREEN KOREA

By Andrew Baxter and Yeonhee Im with Eunsook Lee

"Tulie. Why is it that most Koreans have sat back and allowed their natural environment to be treated with such disrespect?"

"It's not a simple question Andrew and I don't think most people can really give a definitive answer. A large part of the problem though lies within the crash economic development my country has made since the 1960's. In that time we have pulled ourselves away from an annual (1) GDP comparable to the poorest countries in Latin America, Africa and Asia to now being the 13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But of course this growth hasn't been without huge costs,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is but one of many negative consequences our people have had to bear".

Even now you only need to look around to realize that environmental issues hold (2) little currency in Korean Politics, or indeed society in general. Whilst compared to many Asian nations it doesn't seem so bad, high (3) greenhouse gas emissions, noise pollution, unsightly construction projects, excessive road vehicle traffic, intensive cultivation using high amounts of fertilizers and pesticides and the general (4) languor of modern citizens themselves (such as widespread littering) has nonetheless blighted a nation which was once the scenic jewel of the orient.

The Korea Greens is a (5) burgeoning organization which aims to challenge the environmental apathy of society by getting the issue placed firmly on the mainstream political agenda. Whilst still only a small group, only three hundred and seventy members strong it is a fresh face on the political scene operating by the motivational message of the old Korean proverb * "one can build a mountain by gathering specks of dust".

"We are not a registered political party yet", says Mr. Hyung Won Seo, one of the group's coordinators "but we hope to register and stand candidates for the 2008 national congressional elections and possibly have a candidate for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At the moment 10 of our members sit as independents on local body governments nationwide, and we hope to have more than 100 councillors after next year's local body elections".

Even though the group wants to develop a firm national profile, it seems to have its feet (6) pragmatically well grounded at the local level at the moment. "Currently we are more focused on local issues", Mr. Seo says, "We are interested in the uniqueness of local situations and problems. The role of the national government should be diffused to allow more (7) local autonomy.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must be allowed to decide their own policies about their own areas and lives because at the moment the policy from Seoul leaves local people without a voice".

"DD" entered into a discussion with Mr. Seo an activist in the Korea Greens. "Detractors say that one of the main weaknesses of the environmental movement is that it is overly naive about basic economic needs. Sometimes not unfounded, they will cite examples of the eco lobby forcing the closure of businesses such as mines or forests and the subsequent unemployment and financial hardship suffered by the usually semi skilled, lowly educated, working class populations which live in surrounding areas. What's your take on this?"

"Social justice creates sustainable development, if for example we have to close a mine and the whole town loses their jobs we must provide education and opportunities for new jobs, coupled with ample social security well in advance of the closure".

Whilst throwing education, job opportunities (where non may exist) and social security at such a problem often doesn't work and is somewhat idealistic, it shows that the Korea Greens are at least thinking

about the many consequences of the debate, and not approaching it from a (8) dogmatic viewpoint, which is often the case with less politically astute organizations.

"We are a mature organization" says Mr. Seo "We realize that we must work through the system to achieve change. We don't want our members to be arrested or jailed, it is better that we use the courts, the media and the democratic system to oppose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get our message across to the people".

Such an example is the group's leading role in opposing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New Town Project, which aims to demolish and rebuild twenty five neighborhoods in relatively underdeveloped, lower socio economic areas of the capital by 2012.

"Property in the New Town areas will be expensive, although the Metropolitan government is going to allocate a small percentage of the new dwellings to existing poorer residents, it won't be enough, so they will have to move away to other areas. A lot of people will also lose their businesses, especially those who own neighborhood concerns that rely on the same local regulars who have been coming for years. There is also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project, including PM10 and PM2.5 dust particles (which can cause lung cancer at high concentration levels) noise, vibration and other types of pol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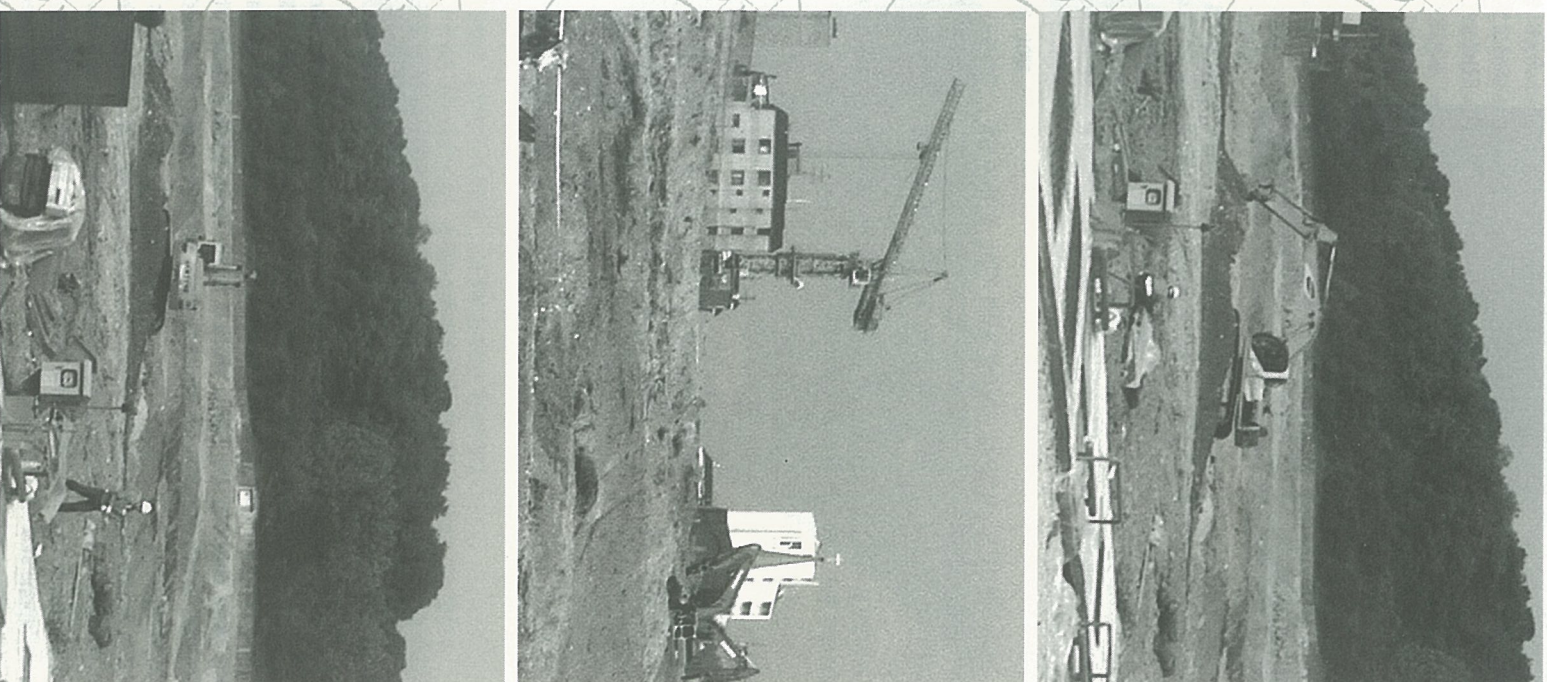
Progressive groups such as The Korea Greens are always going to be fighting an uphill battle in Korean society, especially since big business and conservative forces use the commercial media to depict such organizations as being the bringers of cultural destruction and the Confucianism base upon which it rests. "They say we are challenging elders and being disrespectful of our culture" says Mr. Seo, "but Confucianism is only a small part of Korean life. It's kind of difficult to explain what's happening in the political scene at the moment, because it's a new phenomenon related to the presidency of Noh Mu-hyun. The leaders of the Korean Democracy movements of the 1970's and 1980's are now in power and the conservative forces have really united to fight them and any progressive group. The media exaggerates though, because they want to make older people think that young people are progressives and disrespectful. In reality though it's not the case, not so many younger folk are all that progressive and those that are certainly have respect for their elders. The situation the media portrays is not real".

Whether the situation is unreal or not it is up to the voters to decide whether they believe the media or groups such as the Korea Greens. That aside, the environment doesn't lie, it tells you like it is, which in the case of South Korea needs protection. One can build a mountain by gathering specks

of dust, but one can't build a great land by destroying a mountain.

1. **GDP** - The value of all goods and services produced in an economy during the course of a financial year.
2. **Little Currency** - Something which is not widely talked about or discussed.
3. **Greenhouse Gas Emissions** - Air pollution which is trapped in the atmosphere, thereby generating higher temperatures on earth.
4. **Languor** - Displaying a lack of interest or concern about something.
5. **Burgeoning** - Something which is growing, or getting more important.
6. **Pragmatically Well Grounded** - An action or situation which is derived from common sense, maybe because other actions or situations are impractical to do or achieve at that given time.
7. **Local Autonomy** - Where local or regional governments govern their own areas with no interference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8. **Dogmatic Viewpoint** - An arrogant view or belief which doesn't consider the feelings or rights of others.

* This old Korean proverb means that even if it takes a long time to build something, if you work carefully and hard enough you may succeed. Andrew Baxter and Eunsook Lee are husband and wife, they have two small children. Yeonhee Im is a university student majoring in Journalism.



푸른 한국을 향한 포부

“그런데...”

다. 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연환경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무시무시도록 대대려 “그건 간단하게 대답할 질문이 아닌데요. 앤드류. 다수의 사람들도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문제의 큰 부분은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이룩해낸 경제발전과 연관되어 있지요.

세계에서 지금의 13번째 경제대국이 되기 위해 그 당시에 우리들은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과 필적하는 연간 국민총생산(총생산)을 향유하기는커녕 전력을 다했죠. 물론 이러한 경제 성장이 큰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환경파괴는 우리가 부담해야만 했던 많은 부정적인 결과들 중 하나일 뿐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한국 정치에서나 일반사회에서 환경문제가 소수의 사람들에 관심을 갖는 문제였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교하면 아주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 소음공해, 무질서한 건축계획, 과도한 교통체증, 다량의 화학비료와 살충제를 사용한 집약농업경작, 그리고 관련된 쓰레기 투척과 같은 현대 시민들의 일반적인 환경불만중의 현대는 아름다운 동양의 보석이었던 나라를 매마르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초록시민연대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단계로서 환경문제가 정치적인 건의 주류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환경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저극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370명의 회원이 있는 작은 단계이지만 한국속담 “타돌 모아 태산” 이 뜻하는 것처럼 서서히 정치적인 면에 영향을 주는 시도는 열렬입니다.

“우리당은 아직 청색동물권 청량은 아닙니다. 초록시민연대의 간사인 서형원씨는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청색 동물들을 해서 2008년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들을 등록하고 또한 기능하면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후보자를 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10명의 회원들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정부의 무소속 의원으로 있으며 대법 지방자치선거에서 100명 이상의 시 의회 의원이 선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가 전국적인 지지를 받으면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이미 한국 초록 시민연대는 특정지역에서 실질적인 발전을 마치며 인정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역문제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형원씨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 지역민의 상황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역 자치권을 좀더 확대하도록 도우는 일입니다. 지금은 서울중앙정부로부터 결정된 정책이 무조건 전달되기 때문에 지방 정부들과 주민들은 그들의 자신의 지역과 삶에 대해서 정책을 결정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DDD가 한국 초록시민연대의 활동가인 서형원씨와 이 의제를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운동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운동에 대한 중요한 약점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경제의 필요성을 인식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광산이나 숲과 같은 사업폐쇄의 강요가 환경단체의 입장에 의해 일어난 사례라고 언급합니다. 그 결과로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노동자층이나 자취를 남긴 사람들이 없는 단순 노동자들이 실질적이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풀진가요?

사회적 공평성은 많은 일련의 발전을 만들어 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광산을 폐쇄해야만 하고 그 전체 지역주민이 직업을 잃는다! 그 폐쇄 조치에 앞서, 사회복지와 결부시켜 생각해서 교육과 새 직업의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비상응급적인 교육기회,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의 제공과 사회보장은 종종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어느 정도 이상적이기도 합니다. 한국 초록시민연대는 적어도 그 논쟁의 많은 결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목적달성을 위해 다른 무수적인 처치나 결과에 대해서 무시해 버리는 그러한 독단적인 관점에서 다가가지는 않습니다. “

“우리는 성숙한 단계입니다.” 서형원씨는 말합니다.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체제 속에서 일해야만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회원들이 체포되거나 감옥에 가기를 원하지는 않거든요. 환경파괴에 대해서 이익을 제기하거나 사람들에게 우리의 의도를 이해 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언론, 민주적인 체제를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례로 우리 단체의 주된 역할은 서울 자치정부의 뉴타운 계획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뉴타운 계획은 2012년까지 수도권에 사회경제적으로 수준이 낮은 지역과 비교적 저개발 지역 25곳의 주택지구를 철거하고 새로 지으려는 계획입니다.

뉴타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비싸질 것입니다. 자치 정부는 현재의 가난한 주민들에게 작은 양의 새 주거지를 할당할 예정이고,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양이 아니어서, 그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사업장을 잃게 될 것이고 특히 수년동안 찾아오는 같은 지역 단골손님들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그 이웃간의 관계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뉴타운 계획으로 고등교육에서 폐업을 유발할 수 있는 PM10과 PM2.5의 먼지 미립자들도 소음, 진동, 그리고 다른 종류의 공해가 자연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 초록시민연대와 같은 진보주의 그룹들은 항상 한국사회에서 반대세력이 부딪혀 왔습니다. 특히 차별이나 보수주의 진영이 유교사상에 입각해서 진보주의 그룹들은 문화파괴자라고 묘사하는 장엄적인 언론들을 이용하면서부터 더 어려운 상황에서 맞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청로사상에 도전하고, 전통문화를 경시한다고 말합니다.” 서형원씨는 말합니다. “그러나 유교사상은 단지 한국인의 작은 삶의 일부만을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된 재원상이라 정치권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한국 민주주의 운동에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지금은 권력층에 있고 보수주의 세력들이 지금의 그 권력층과 진보주의 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 서로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을 공격적이고 버릇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과대과장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닙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공격적이기도 않고 노인들을 분명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묘사한 상황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상황이 사실이란 아닌, 언론을 믿어야 할지 한국초록시민연대와 같은 단체를 믿어야 할지는 전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자연환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진실을 말합니다. 뉴 군기는 한국에서 자연 환경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타돌 모아 태산을 만들었지만 그 태산을 파괴함으로써 좋은 나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1. GDP(국내 총생산) - 외채 연도 중 경제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
2. Little Currency - 꼭 넓게 이야기 되거나 되는 되어지지 않는 것
3. Greenhouse Gas Emissions - 대기 중에 갇혀 있는 대기오염 그것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킨다.
4. Language - 어떤 것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5. Bureaucracy - 어떤 것이 상충하거나 아주 중요하게 되는 것
6. Pragmatically Well Grounded - 다른 행동이나 행동들이 주어진 시간에 실천하거나 의무기에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상식에서 나오는 나오는 행동이나 상황
7. Local Autonomy - 중앙정부로부터 간섭 없이 자신의 지역에서 지역 주민이 자치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곳.
8. Dogmatic Viewpoint - 다른 사람들의 권리나 감정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독단적인 관점이나 신념

* 이 한국의 속담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지라도, 열심히 진중히 일한다면 성공할 것이다. 앤드류 벡스터와 은숙씨는 부부이고 두 아이들을 두고 있다. 임연희는 저널리즘을 공부하는 대학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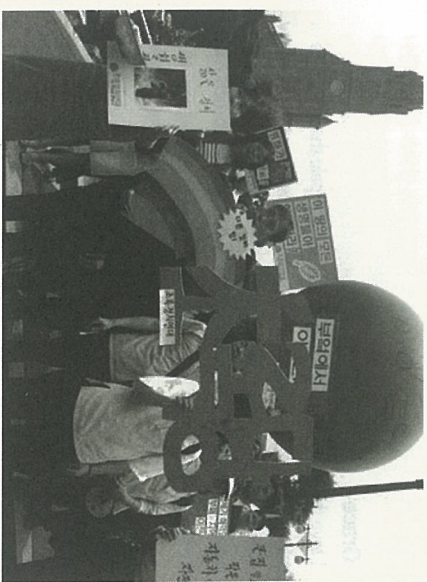
Koreans and Japanese hold a joint action for peace in Asia.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은 한국인과 일본인이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함께 행동 하기로 한 것이다.



Peace Mob against the Korean troop dispatches to Iraq

평화를 지향하는 군중들이 한국 군대를 이라크로 보내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Peace parade in commemoration of the founding of the Korean Greens.

초록 연대가 창립하는 것을 축하하는 평화 퍼레이드

글: 앤드류 벡스터, 임연희 옮김이 이은숙

DDD Poetry SQUARE

with ArtWork from the Hongik Graduate sculpture show

May in LA 2005.

My home in L.A, I call my old friends and have dinner. Then lots of beers and a big bottle of Russian Vodka. My stomach aches terrible. All I can do anyway is dance and sing a song. I fall asleep on the dirty boardwalk they are afraid for me and remind me of my mother waiting but I know that I am alive.

Hyun, LA and Hongdae U.

TEA DREAMS

The tea drinks for me
I sing for such a moment
To be swallowed
Tired swollen white
Eager refreshing spring shouts
It owns my one life

by Andrew Daepoon

Apartments

I'm anchored to paths worn by daily passage. Senses in a dead winter, trees misfire amongst cold circuitry of apartments. Oh, how welcome a storm would be now!

by mitt and hae jin, calgary

3-piece Haiku for Miss Bae

Her hair is falling
In the room next door
Me... still in its swing

HAIR

Red flows everywhere
Like blowing hope from candles
Soft deep light it blinds

COAT

Those heels clicking fast
yet slower than new heart beats
Together we roar

BOOTS
by s.l.s. Seoul Kyungju

ILLUSION

Let me dwell in a world of obscurity
And sink into my hazy dream
Keep me away from reality
And dreadful disillusion
He dwells in my imagination.
I pull patches of memory, of him together,
thinking he is watching me
As if one strand of neurons are connected to him...
It keeps me alive

By dhrin kang, InsaDong

Grace

I love the grace that comes with age making pale the brashness of youth or the grace of gentle breeding that allows a person to know more than others yet not believe that way. I love the grace that rewards substance over style because making that decision can sometimes be very unpopular.

By daniel carlson (Hazeon)

Silent Dreams

When I enter a room, the weather turns very cold. Trees inside the room become very gray. This is a very noisy room. Many people are talking, no one is talking to me. I looked around to search a silent room.. Downstairs. I knock on a door. I knock again and again nothing... I enter the room carefully. The room owns dark and quiet. This cannot be a common room... look at that shining mirror.. I am in front of it. There is only a small bug!

By Eunjin Ha, Hongdae U.



2005년 5월 LA

LA 의 집에서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식사를 한다. 많은 맥주와 라시안 보드카 큰 병 하나 까지. 위장이 지독히 아프다. 아팠든 내가 할 수 있는 건 춤추고 노래하기. 터러운 보도 블록 위에서 잠이 든다. 모두들 걱정하며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일깨워 준다. 그러나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깨닫는다.

현, LA 그리고 홍대

차의 꿈

차가 나를 마신다
나는 이순간을 위해 노래한다
삼켜 지기 위해
창백하게 부푼 피로에 젖어
신선한 봄의 외침을 갈망하며
그것이 내 삶을 소유하고 있다.

인드류, 대전

아파트

일상의 행로에 돌아버린 길에 빛을 내린다
죽은 겨울의 감각들; 나무들은 차거운 아파트 회로 사이에서 어설피다
오, 폭풍 이라도 몰아치면 좋으련만!

매트와 해진, 캘거리

미스 배를 위한 3편의 하이쿠

그녀의 머리칼이 흘러내린다
바로 옆방에서
나는...아직도 그 흔들림 속에 있다.

마리칼

서방에 붉은빛이 넘치네
마치 촛불에서 불어오는 소명처럼
부드럽고 깊은 빛 눈이 부시네

코트

저 멀찍 가리는 빠른 발걸음
그래도 새로운 심장 박동보단 느리지
우리는 함께 폭소를 터뜨린다

s.l.s. 서울/ 경주

환상

몽롱한 세상에서 살게 해주세요
내 흐릿한 꿈속에 가리얌게
현실로부터 두려운 깨달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주세요
그는 내 상상 속에 산답니다.
나는 그에 대한 기억의 편린들을 끌어 모읍니다,
그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마치 한 기억의 신경이 그와 연결되더라도 한 듯이...
그것이 나를 살아있게 합니다.

강 아린, 인사동

꿈 위

나이 들며 생겨나는 이 꿈위가 나는 좋다
젊은 날의 무모함을 빗 바래게 하는
남보다 많은 것을 알되 그것을 과시 하지 않게 하는 온화한 예의 범절의
기쁨.
외형보다 본질에 가치를 둘 줄 아는 이 꿈위가 나는 좋다
그러한 절정은 때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레이버드 칼슨, 이태원

고요한 꿈

내가 방에 들어서자, 기호가 차가워 진다. 방안의 나무는 햇빛으로 변한다. 이것은 아주 소란스런 방이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는다. 나는 조용한 방을 찾아 나선다...아래층으로. 문을 두드린다. 다시 또다시 두드리지만 응답이 없다. 조심스레 방으로 돌아선다. 이방은 어둠과 고요를 가지고 있다. 이방은 평범한 방이 아니라...빛나는 겨울을 본다. 그 앞에 선다. 그곳에 있는 건 단지 작은 별테 한 마리!

하은진, 홍대



Poem to Korea for Sun-Wha

With what scope you peer into a Western society that seldom is aware of your existence

beyond wars——caught between the drive to maintain the integrity of a proud culture and the wanton desire to become hip, chic, cool—you have cut your eyes and loosed your tongues in mimicry.

Something unreal in it's own existence——a stubborn unyielding pride shouting of your heritage, your culture—refusing ideas and expansions of thought and unity.

I've felt the stares from old men, heard the laughter and the tales—I've seen my friend running running scared chased.

You've seen the accidental death of your children and railed against the tanks and guns carelessly treading your streets——though it be no consolation I'd replace the tanks with poetry and prose so you'd feel the soul-mind-heart of us——

and you've part of my soul-mind-heart Korea & it's caught in the same trap

Through the eyes of a lover I've hardly kissed & only held gingerly~~~~~for fear of breaking us both——

by Jeremy Linneen



선화를 위해 한국에 바치는 시

어떤 시각으로 당신은 서양 사회를 보는가 그대 존재를 아는 이 거 의 없는

전쟁 넘어서서.....자랑스런 문화의 고결함을 지키려는 열망과 현대적이고, 멋지고 세련되 보이려는 알뜰한 욕망 사이에 사로잡혀...., 당신은 눈을 파내고 풀린 혀로 앵무새 처럼 따라 말하고 있다.

그 존재 속에 어떤 비현실적인 것 이있다...., 당신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완고하고 굴종을 모르는 자부심에 찬 외침 ...거부하는 사상과 사고 의 확대와 통일.

나는 노인들의 시선을 느꼈고, 웃음과 이야기를 들었다...나는 또 내 친구가 두려움에

쫓겨 달리고 또 달리는 것을 보았다:

당신은 당신들의 아이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는 것을 보았고 당신들의 거리를 함부로 유린하는 탱크와 총에 저주를 퍼부었다....

비록 위로가 되진 않았지만 나는 탱크 대신 시와 산문으로 대처하 고 싶다.

그리하여 당신이 우리의 영혼, 정신, 마음을 느낄수 있도록...

당신은 그대와 같은 빛에 사로잡힌 내 영혼, 정신, 마음의 일부를 가 지고 있다 한국이여

제대로 입맞춤도 못하고 가까스로 품에 안아 보기만한 내 연인의 눈을 통해.... 우리 둘 모두 부서질까 두려워져서.....

제레미, 이태원

Friends 친구들

여기 한국의 내 친구들
우리는 싸야해
창조하기위해
그리고 함께하기위해

죽

항상화 하기 위해
무르고 느슨한 단어들을
날카로운
남 썰기로

그리고

두드리고 두드리쳐

이해를
살로

the heave of a chest
in a deepest breath palms up

arms outstretched
light lonely
on a roof top

on a wobbling earth

Ahh friends what weight we create

By anonymous, Korea U.

그리고 and

가슴을 들고
깊은 숨 몰아 쉬고 손바닥을 위로

그리고

팔을 꼭 뻗어
가볍고 외롭게
지붕 위에서

위창거리는 지구 위에서

아 친구여 우리가 어떤 무게를 창조하는지...

고려대학생

Pills

i need red pills to make me feel hot

i need blue pills to make me dummy

i need black pills to make me a ghost

i need white pills to make me an angel

i need YOU pills to make me happy...

by Jin Wha, Sweden

Tears

Only one who has experienced sorrow knows
that water can also burst into flames.

Only look at the crimson blaze

rising from the horizon on a summer's day

beside the sea at sunset. It's as if it's so sad about something

that it has wept until its eyes are red.

White salt crystallizing on the mud

like traces of tears on a che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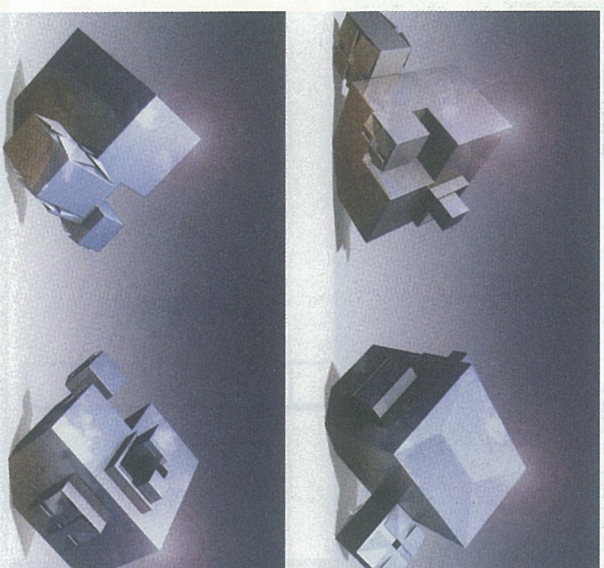
salt is the charcoal of love.

If we say that love is light rising as fire,

sorrow is light rising as water;

and tears rising gently in the eyes make the darkness bright.

contd. pg 12



약

나를뜨겁게 하려면 빨간약이 필요해

나를 굼뜨게 하려면 파란약이 필요해

나를 유령으로 만들려면 까만약이 필요해

나를 천사처럼 만들려면 하얀약이 필요해

나를 행복하게 하려면 너 라는 약이 필요해...

진화, 스웨덴

눈물

오직 슬픔을 느끼본 사람만 알 수 있지

물조차 불꽃처럼 타오를 수 있다는 걸

여름 하늘 수평선 위로 솟아오르는

핏빛 불꽃을 보기만 하면 되

해질녘 바닷가에서. 마치 무언가 너무 슬퍼서

너무 울어서 붙어진 눈처럼 보이지.

갯벌 위에 희게 굳어지는 소금은

땀 위에 흐른 눈물의 흔적;

소금은 사랑이 타버린 게 이지.

사랑이 불처럼 타오르는 빛이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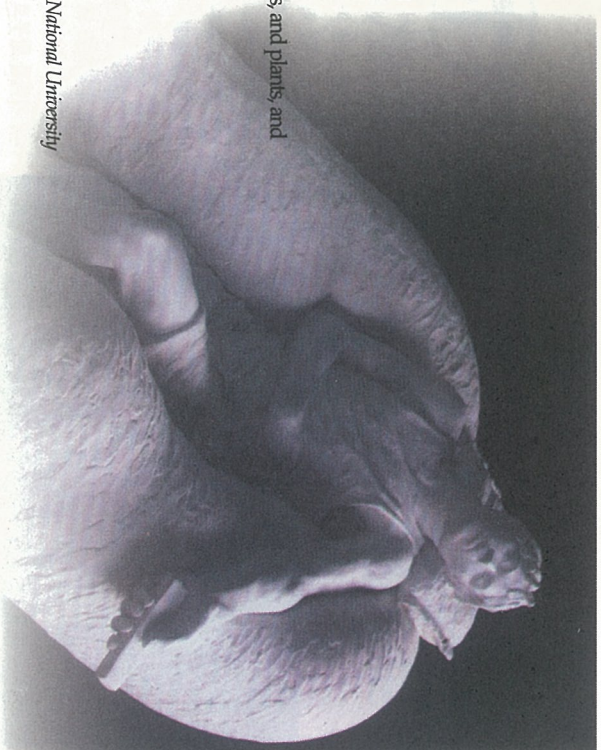
슬픔은 물처럼 솟아오르는 빛,

그리고 솟아오르는 눈물은 아픔을 밝혀주지.

다음 페이지에 계속

There is darkness in God's heaven too
 Just as I scatter letters one by one
 a, b, c, d... on the empty lines of my page,
 God scatters stars in the evening sky.
 Why should empty space be so frightening?
 God's space up there, eager to stop up with light
 the void of the Absolute, while I try to fill it
 with words. When I scatter letters one by one
 a, b, c, d... on the empty lines of my page
 the seeds that fall to the ground grow into flowers, and plants, and
 trees but yet sooner or later they all return
 back into empty space. Language
 vanishing like the blaze of a shooting star
 in the distances separating you and me,
 and since there is light there is darkness
 in God's heaven too.

By Oh Seae-yo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신의 하늘에도 아들은 있다
 마치 내가 a, b, c, d... 글자들을
 빈 종이 위에 흩뿌리는 것처럼,
 신은 저녁 하늘에 별들을 흩뿌리신다.
 왜 빈 하늘은 그토록 두려운 걸까?
 신은 저 위 우주에서, 절대적 공허를
 빛으로 채우시려 한다. 내가 그것을 말로
 채우려 하는 동안, 내가 글자를 하나씩
 a, b, c, d... 빈 종이 위에 흩뿌릴때
 대지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서 꽃이 되고, 풀이 되고
 나무가 되지만, 조만간 그들 모두
 텅 빈 우주로 돌아가겠지. 언어는
 유성의 빛나는 꼬리처럼
 너와 나를 갈라놓은 공간 속으로 사라지고,
 빛이 있음에 아들이 있나니
 신의 하늘에 마저도.

오세영, 서울대

GHOSTS

I'm a Philippine I believe in Ghosts.
 One cries a nation collapses... It collapses very well.
 They try to revive their fate. They can't go anywhere the lollipop is
 off the stick

You can't be too late to Hell.
 Method acting is an abstraction rolling down their faces
 Asking for forgiveness, blurs, second chances haze.
 In life, in death the slippery slope doesn't give a shit.
 Darkness will always be there.
 Play the lottery, win, marry a ghoul
 Go ahead let light in
 Change everything but your place of birth.

BLOOD

When your blood isn't silent it is "Revelation"
 My blood talks to me... knows about the other blood.
 How they mingle, blood doesn't know about sunlight or shadow
 blood can't know what's happening out there, blood's not on the
 pavement it's not on the Disney Channel.
 It is not inside tears it is not inside spiteful.

Maybe blood has a brain because it reminds me of things I shouldn't
 have done.
 And not even God can console blood, blood cannot be overpowered
 But blood cannot destroy the whole mankind
 Blood needs a woman to help with that.
 I am positive. And I am going to do it.

By Gem Philippines/Seoul

Roomm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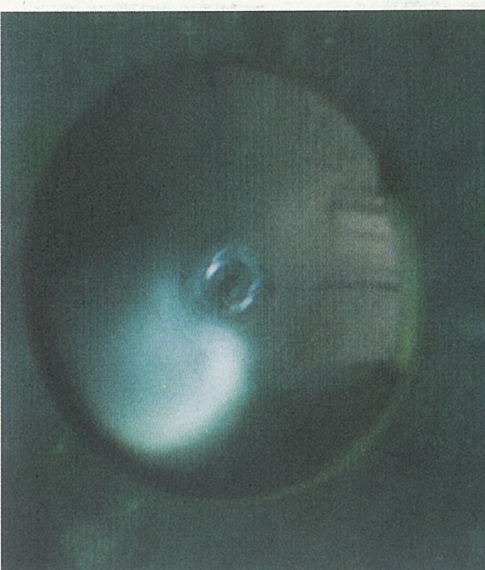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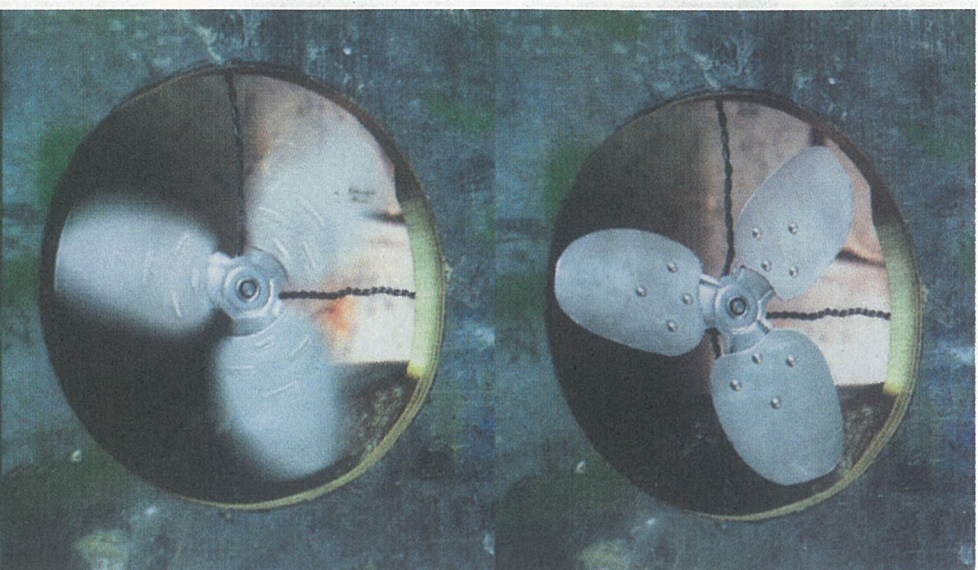
In a room filled with smoke-tinted rock memoirs,
 she lies, face down, in what seems to be a deep, deep stupor.
 Her Marlboro-smelling wet, leather jacket
 still full of Havana cigars
 reminds me that this isn't the first time, never the last,
 that she came home in a raging torpor.

no time to kiss the whiskey bottle
 in an attempt to drown your sorrow.
 Yea, life's not what you want
 however you may crave every night

Sleep, less, while it lasts.
 The sun may still shine tomorrow
 but the day will not be any brighter.
 So sleep less, while it lasts,
 though I doubt you'll ever care.

Yet all that I know,
 I know and I know
 that you are not the queen of the dark,
 that you claim to be yours.
 Smoke on the horizon,
 smoke in your eyes,
 smoke on your dark, stark lips,
 that bid me dark, restless sleep.

Han Hae-ri, Daewon Foreign Language H.S.



귀신

난 팔리핀 여자 귀신을 믿는답니다.
 누군가 울고, 한 나라가 무너집니다. ...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운명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어디에도 갈 수 없습니다. 표지판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옥 가는데 서두를 것 없지요.
 틀에 박힌 연기는 사람들 얼굴에 공허함으로 흐릅니다.
 용서를 구하고, 불확실해지고, 두 번째 기회는 안개로 휩싸입니다.
 삶과 죽음에서 미끄러운 비탈길 정도는 전혀 문제될 것 없지요.
 아들은 항상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재미를 뽐고, 당첨되면, 귀신과 결혼을 하고
 아서 가서 빛이 들어오게 하세요.
 모든 것을 바꾸세요 태어난 곳만 제외하고.

피

피가 들끓으면 "제시"이다
 내 피가 나에게 말한다..... 다른 피에 대해 안다고.
 어떻게 그들이 섞이지. 피는 빛과 그늘에 대해 모른다
 피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피는 그 거리에 없다 다즈
 니 체널에도 없다.
 눈물 속에도 없다 빨는 침 속에도 없다
 아비도 피에는 뇌가 있을 것이다 하지 말아야 했던 일을 상기시켜주니까
 신조치도 피를 위로할 수 없다. 피를 정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가 온 인류를 파괴할 수는 없다.
 그러기 위해선 도와줄 여인이 필요하더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것이다.

켄, 팔리핀, 서울

룸메이트

연기와 채색된 돌 장식으로 가득한 방에
 그녀는 앉드려있다, 깊고 깊은 혼수상태에 빠진 듯
 말보로 냄새에 절은, 아직도 허버나 시가로 가득 찬
 그녀의 젖은 가죽 재킷은
 그녀가 이런 인사불성의 상태로 귀가 하는 일이
 처음이 아니라 낯, 절대 마지막도 아니라는 걸 일깨운다.

네 슬픔을 달래려고
 위스키 병에 입맞춤 시간이 없다구
 그레, 삶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
 밤마다 내가 아무리 간절히 열망해도

그레, 자거라, 친구야, 잘 수 있을 동안은.
 태양은 내일도 빛나겠지만
 그렇다고 날이 더 밝으란 법은 없지
 그레, 자두어라, 친구야, 잘 수 있을 동안은,
 내가 상관이나 할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내가 아는 건,
 내가 아는 건 정말 아는 건
 내가 주장 하는 것처럼
 내가 아들의 여왕이 아니라 낯,
 수평선 위로 피어나는 연기,
 네 눈망울 속의 연기,
 네 칙칙하고, 메마른 입술 위의 연기,
 내게 어둡고 불안한 잠을 청하는.

한혜리, 대원외국고등학교

피아어 메이터

봄이 여름의 열정을 이야기 한다
겨울은 이제 지났노라며
계곡의 바람은 나른한 온기를 들어올려
분주한 산꼭대기로 실이 나르고
그곳에선 멋진 경쾌함으로 소나무들의 춤을 추고 있다-
뽀족한 잎을 곧추 세우고, 취이 잠기며
자신만의 우아한 회전무를
사뭇물은 재잘거리며
젊음의 환희와, 잎이 붙었던 무덤 속에서
소생한 그들의 생명을 노래한다.
새 여행을 다시 시작하고자 들뜬 물은
되살아나 아래로 흐르며, 작별을 고한다.
순환은 그렇게 끝나고, 또 그렇게 시작 되리니.

존 러저스, 뉴 한슬

행복한 PC방
Happiness in PC Bang
집이 너무 멀다...
My house is too far..
지하철도 없다.
There is no subway either..
바스는 가끔 있다.
well, there is a bus sometimes..
집은 무겁다..
my bag is heavy..
월급은 내동생 발기려의 때만 큼이다....

my paycheck is as small as my sis' s foot' s dirt....
헛드폰은 이미 일을 끝낸 뒤의, 미쳐 내리지 못한, 번기속에 빠졌다...
my cell was fell down to the toilet after I finished my business before
I flushed..
이젠 앞뒤가 꺾어진 겨울 구두는 보기도 싫다...
I now hate seeing my old winter shoes cos they are too tight
and hot..
그러나 오늘 밑창을 한 번더 갈아주었다.
But I put some new soles into them today.
피씨방의 담배연기는 더더욱 싫다....
I hate all smoke in this PC Bang even more....

Spring speaks of summer's ardor
and tells tales of winter passed.
Valley winds lift languid warmth
to busy mountain peaks where
pines dance with deft delight-
Each needle strands, twists
its own pironette.
Streams babble and sing of
youthful rejoice, their life
exhumed from frozen tombs.
Water, eager to renew its journey,
descends, revived, bidding farewell.
Her cycle ends and so begins.

John M. Rodgers, New Hampshire

힘겹거리며 치다보는 옆의 남은 한데 배려 주고 싶다....
I want to beat up a guy next to me cos he keeps glaring at me..
그러나... Though..
오도기도 못하는 나는 또 피씨방에서 이렇게 앉아 있구나...
I am sitting at PC Bang cos I have nowhere to go...
그러나 남들은 나에게 행복한 줄 알고고 하리라...
But they say I need to know that I am still happy...

Yoon SOO, Seoul
윤수, 서울

Pia Water

Cross World Cross Word

by Woo Jung Lim

ACROSS

- Expel from the country 나라에서 추방하다
- Curly hair 곱슬머리
- State of mind 마음가짐
- To guess 추측, 추정하다
- Ideal 이상적인
- Not experienced 경험이 없는, 초보의
- Something that happens by chance 우연히 발생한 것
- After school school 방과후 학교
- Extreme excitement 극도의 흥분, 열광
- Hard cover for broken limbs 부러진 팔,다리를 보호하는 딱딱한 덮개
- The other option 다른 선택
- To live for a while 잠시동안 살다
- A group of people or fish 사람이거나 물고기의 무리
- One of a kind 독특한

DOWN

- Bottoms up 건배 ~ 한번에 다 들이켜다
- Entertainers 재능을 가진 사람들, 연예인
- A large variety 큰 다양성
- Clever and manipulative 똑똑하고 교묘한
- White powder in coffee 커피에 넣은 흰색 가루
- Good luck, cheer up 힘내라!
- A very busy city 광장히 분주한 도시
- Former club members 동창생들
- A portable computer 휴대용 컴퓨터
- A master of nets and boats 그물과 보트의 거장
- A table game of sticks and balls 막대와 공으로 하는 테이블 게임
- A religious lesson 종교적인 교훈
- Animal or plant waste nutrients 동물이나 식물의 영양분
- Shared 나누는, 공유하는
- Insult with opposite behavior 반대행동에 대한 모욕
- A hot home for plants 식물들 기르기 위한 실내 공간
- Not real 진짜가 아닌

한국인의 독창적인 생각

서로간의 연결 관계



/ 김민정 씀

많은 젊은이들은 봄이 되면 깊은 관계를 만들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들은 때때로 관계라는 것이 인위적이라는 것과 사람들은 서로가 좀 더 가까워지기 시작하더라도 진정한 자신을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까? 또한, 많은 대학생들은 "고등 학생이었을 때가 나의 진정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시절이었어" 라고 말한다. 영화 '남자에 관하여'에서 보면, 인생의 봄날에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도전과 마찬가지로 인 것 같다.

주인공 윌 (휴 그란트)은 영화의 첫 시작 부분에서 "모든 남자들은 심이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협조하거나 의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어떤 사람이 충분한 물질적인 풍요와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다면 그들 자신만의 파다라이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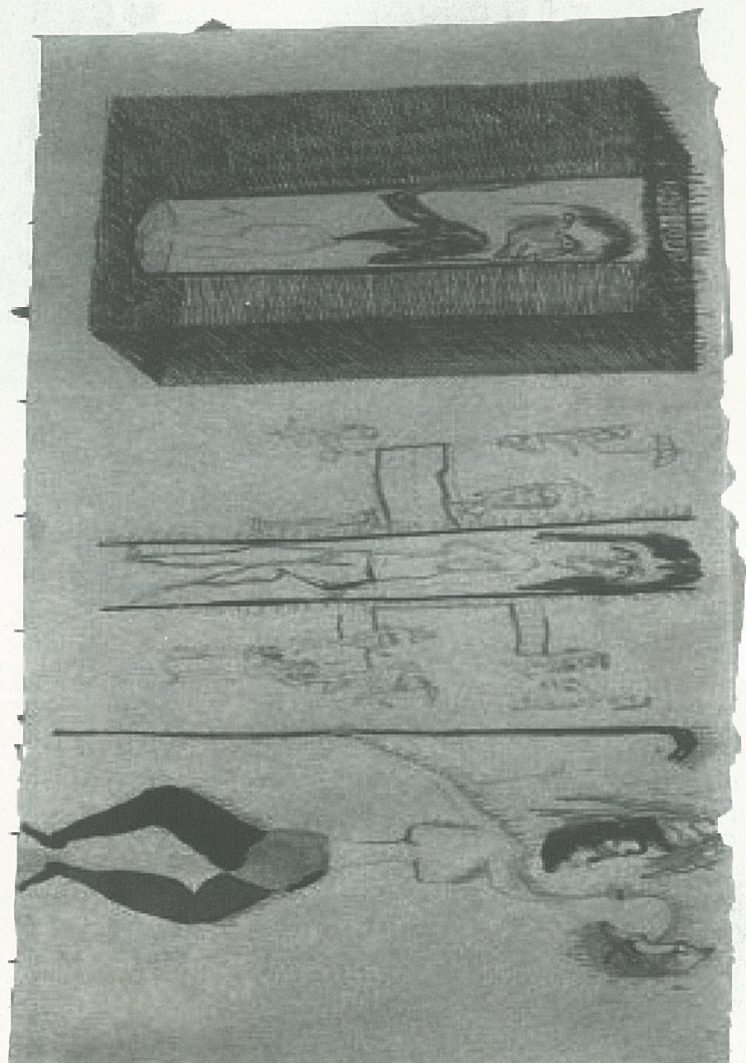
윌은 사실상 어떠한 실질적인 사회 관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는 직업도 없고 함께 사는 가족도 없으며, 그의 인생 내내 단지 여제들과 시간을 때우면서 노는 것으로 소일하면서 살고 있다. 어느 날, 윌은 아기가 딸린 독신 여제들이 유혹하고, 데이트하고, 침대로 데려가기가 훨씬 쉽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독신 부모 모임에 가입한다. 이 지극히 개인주의적 사고 방식이 저돌적이고 기묘하게 여겨 질 수도 있지만, 작가가 (닉 혼비) 말하고자 하는 것은 관계에 향한 우리의 태도이다.

나는 대학생이며, 대학신문의 편집자이다. 이 영화를 보고 난 후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대하여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공부나 여행과 같은 활동과 열정을 나누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었는가? 대학 내에,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클럽 모임 또는 일반적인 모임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면 당신이 마음을 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친구 만들기와 관계 쌓기는 인간성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지만,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진정한 모습을 보여 주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을 거부하거나 당신에게 호응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은 당신이 처음부터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면 당신이 마음을 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저, 영화로 돌아가자. 윌은 독신 엄마와 또 다른 '공허한 느낌'의 관계를 시작한다. 그러나, 그녀의 자살 미수 사건 후, 그녀의 아들 마르쿠제와의 관계가 시작된다. 윌은 마르쿠제의 영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헬렌 더 나이가 많은 윌이 그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다.

지금 내 인생에서 알고 지내는 몇 명의 진정한 친구들은 다른 모든 인위적인 관계를 보다 훨씬 능가할 만큼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인간 관계에서 훌륭한 작전은 항상 정직하게 상대를 대할 것, 타인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늘 염두 해 두는 것이다. 작가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만이 스타일과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누군가 당신이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꽤 근사한 사고 방식이 될 것이며, 당신의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윌은 영화에서 이렇게 말한다, "모든 남자는 심이다." 어쩌면 그것은 정말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명백하게 우리들 중 몇몇은 심 체인의 일부분이며, 그리고 바다의 표면 아래에 우리는 실제로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글쓴이는 건국대학교 사보 편집장이며, ddllifeinkorea@yahoo.com로 연락 가능.

★ 인터넷 (온라인) 투표

VOTE: www.lifeinkorea.org

how often do you
perma your hair??

Q : How often do you 'perma' in your hair?
Q : 얼마나 자주 당신은 당신의 머리에 퍼머를 하나?
(or 당신은 얼마나 자주 당신의 헤어스타일을 바꿨습니까?)

- I'm a male and I never 'perma' my hair (나는 남성이고 결코 나의 머리에 퍼머를 한 적이 없다)
- I'm a male and I 'perma' once a month (나는 남성이고 한 달에 한번 퍼머를 한다.)
- I'm a female and I never 'perma' my hair (나는 여성이고 결코 나의 머리에 퍼머를 한 적이 없다.)
- I'm a female and I 'perma' once a month (나는 여성이고 한 달에 한번 퍼머를 한다.)
- It doesn't matter if I am a male or female I always need to 'perma' my hair (내가 남성이건 여성이건 간에 나는 항상 내 머리에 퍼머를 하길 원한다.)



KOREAN Creative Thinking

Connecting to Each Other to Each Other

Many young people begin to make deeper relationships in spring. Can they also recognize that sometimes the relationships are still artificial and people rarely show their true self even when they are becoming more and more familiar with each other? Also, many university students say that, "When I was a high school student those were the years that I met the most sincere and true friends." Well, the movie, "About a Boy", is a bit similar to the challenge of meeting people in the springtime of life.

The leading man Will (Hugh Grant) says in the very first scene that "All men are islands." This means that people do not need to cooperate with or depend on someone else. He believes that if someone has enough material things and a right way of thinking that they can live on their own paradise island without being concerned about other people.

Will does not actually feel the necessity to have any real social connections. He doesn't have a job or a family to live with and all his life he has just hung around with girls. Then one day Will recognizes that single women with children are much easier to attract and date and go to bed with. So, he joins a single parent party.

This individualistic way of thinking can be considered aggressive and bizarre, yet what the writer (Nick Hornby) wants to talk about is our attitude toward relationships.

I am a university student and editor of the school newspaper and this movie makes me wonder about the people around me. Is there anybody who wants someone to share activities and passions with like studying or doing some traveling? In university, I wonder does anybody besides me get a "vacant feeling" during club meetings or regular major meetings even though they are surrounded by many people.

Basically, making friends and building relationships are natural things in human nature. But if you don't begin to show your true self, then neither will anyone else; other people avoid opening their minds and do not respond to you. My point is you need to have your mind open if you begin a relationship right from the begin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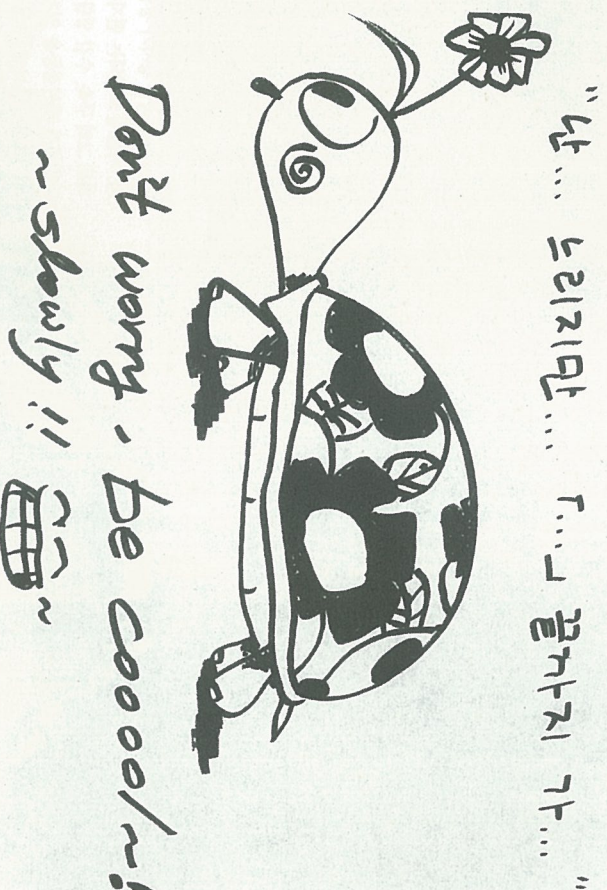
So, back to the movie! Will begins another vacant feeling relationship with a single mother. But, after she tries and fails to commit suicide, Will and her son Marcuse begin a relationship. Will begins to change himself as he interacts with Marcuse, and finally then the much older Will begins to open his mind.

And the people in my life now know that a few true friends surpass all of the artificial relationships made in school. And perhaps, it would be better to keep in mind that the important strategy is being honest and unafraid to meet strangers. Writers know that everyone has their own style and space, and it is difficult to approach someone you don't know. But, if we can do this, it becomes quite an adorable way of thinking and makes the life more valuable.

Will says in the movie, "Every man is an island." And that might be true. But clearly some of us are part of island chains and below the surface of the ocean we're actually connected.

The Min Kyoung Kim is Editor-in-Chief of the Konkuk University Bulletin.

So Hee Kim is a translator in Seoul Contact ddldlifeinkorea@yahoo.com



He Says : Did you know "Sex in the City" is an Australian show?
그가 말하기를 : "섹스 인 더 시티"가 호주 쇼 인 것을 알았나?
She Says : My dog is cooler than this guy!
그녀가 말하기를 : 나의 애완견이 이 남자 보다 훨씬 더 멋져.



A.Clude

구금 불법 강사에게 인권이라는 것이 보호되는가

*오마이뉴스 한국편의 허가 후 사용

코 근 몇 달 동안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영이 강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원어민 영어교육은 대규모 사업이다. 원어민 영이 강사와 영어 학원 원장님들에게 돌아가는 수입도 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불법 강사들에 대한 보도가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했다. 가장 최근 2월에는 외국인 강사들의 태만과 불법적인 관행을 다룬었던 한 TV 다큐멘터리가 방영하자 한국국민들이 분노하고 한국정부는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강사들이 대거 구속되고 본국으로 강제 귀국됨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사회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그러나 중론은 이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변호, 보호, 약식 재판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3월 24일 항만도시 부산에서는 불법으로 체류하던 한 외국인 강사가 경찰에 의해 구속된다. 다음에 소개되는 편지는 그가 5월 2일자로 그의 구속, 수감 생활, 불법 강사 체포 과정에서 개선점등을 일기 형식으로 소상히 기록하여 본보에 보내온 내용이다. 발신인의 주소는 남해안에 위치한 여수의 범무

I n recent month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cracking down nationwide on foreign English teachers working illegally. English-language instruction is a massive industry here, with relatively high salaries for native English speakers and the owners of the private institutions. But over the past few years, stories of unqualified instructors have faced the glare of the media spotlight. In the most recent instance, a television documentary in February highlight-

Prison Story of an English Teacher

* Courtesy of OhMyNews international Korea

ed negligence and criminal activities by some of these foreign teachers, prompting public outcry and renewed government action.

Widespread arrests and deportations have alarmed the expat community. Many feel there is no due process and point to insufficient legal representation, protections and instances of "summary justice." One vis-less American English teacher, who was arrested by police in the port city of Busan on March 24, sent OhMyNews a long, diary-style letter on May 2 detailing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his arrest, his day-to-day prison life and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s in the system. The letter's return address was from the Ministry of Justice's Immigration Office Detention Center at Yeosu, along Korea's south coast.

The writer does not want to be identified for fear of Retribution.

"It's my 15th day here at the Ministry of Justice's Yeosu Immigration Office Detention Center. (Before I came here I spent seven days at the Busan Immigration Office.)

Dear Korean people, Please forgive me for my wrong doing. Forgive me for falling in love with your country, food, culture, people, history, land, spirit, cities, mountains, trees, traditions, manners, neighborhoods, skies, rivers, scenery, atmosphere, joys, triumphs, disappointments, fashions, parks, museums, language, movies, TV shows, music, families, seasons, paintings, arts and much, much more for the past six and a half years.

I was born in New York City. My parents are Jamaican. I'm 34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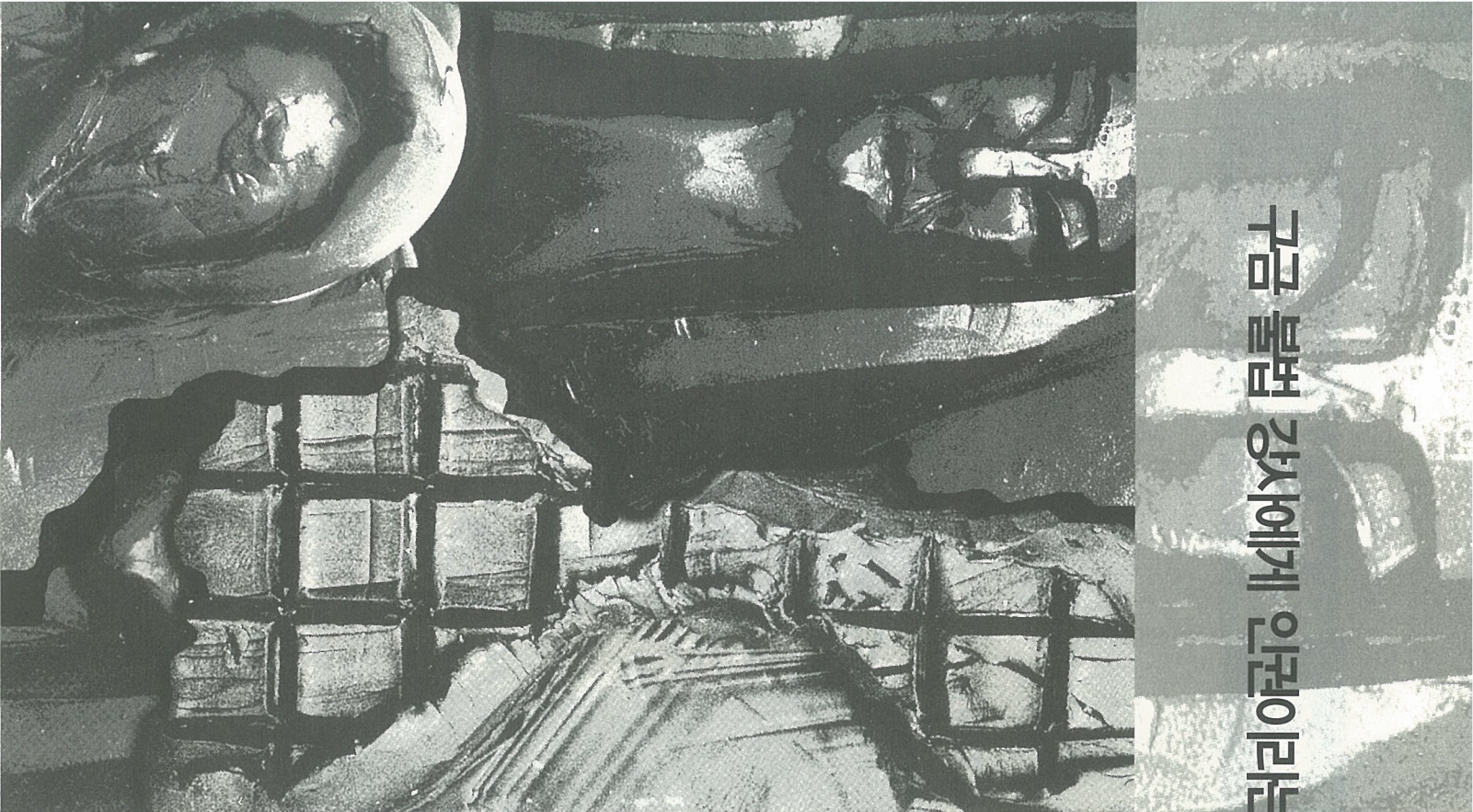
old. I studied Korean here for two year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but I still have so much more to learn. If I am able to in the future, I wish to continue my studies, live in Korea and eventually become a Korean citizen. I want to contribute whatever I can to making my adopted home the best place it can be.

I was taken into custody by two police officers on Thursday, March 24, 2005, on suspicion of teaching English at a Busan language institute without a proper visa. In short, I was tied, convicted and sentenced — or rather handed over to the immigration office authorities to be deported. Immigration determined that the case against me was valid. I was told I had to leave Korea...

When I was first brought to the immigration authorities in Busan, I was threatened verbally as well as physically because I refused to show them my passport. It was taken from me by force after at least seven immigration and police officials held me down (one, almost suffocated me by covering my mouth). Before they knew I was an American they thought I was from some African country. After they learned I was American, their attitudes changed drastically...

Although I can't blame the police and immigration officials for trying to do their jobs, I believe my human rights were violated. I do not seek retribution. I don't want revenge. I do, however, feel that if the way I was treated in their zeal to determine my identity is common practice, then such procedures should be immediately discontinued, corrected and discouraged by law. I never had the benefit of protection of a lawyer during the entire time I have been in police and immigration custody. I was never properly informed about what my rights are. I don't even know the names of any of police and immigration officials that I have encountered so far. I never knew my rights when I was arrested. I never saw a judge. The only time I had the benefit of a translator was when I was asked to give a statement — in which the police officer who was typing it and asking me questions — conveniently left out the incident where I was brought to immigration in the dead of night and verbally and physically assaulted by seven officers because I refused to cooperate. Is this justice?

For the complete diary go to www.ohmynews.com or email toold@ohmynews.com



Joanne Kim studies translation.
Contact dddilifeinkorea@yahoo.com

http://www.greens.or.kr

VOTE GREENS

The Korea Greens
sun@greens.or.kr

Human Rights Is Hope

JOIN US
국제앰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 S. Korean Section

Tel. 02-730-4755, 4756
Fax. 02-738-4754
Email. amnesty@amnesty.or.kr
Homepage. www.amnesty.or.kr

Editorial Design Book

Book Newspaper
Newspaper Magazine
Ad Ad
Brochures Catalogue
Annual Catalogue
Poster
Annual Poster

Tel : 02)333-7136

rollingstones2
with SPACE MONKEY

Real Band LIVE CLUB

RocknRoll Blues, Hardrock, Heavy metal
Hardcore, Rap metal, Punk, Funk, Britpop...
with Beer & Drink

Daily LIVE - Open pm 6:30 ~ 11:00
(off day - Monday)

more INFO - Tel. 02-332-9439 0 ~ 9608-9439
http://cafe.daum.net/SPACEMONKEY

work n play

www.worknplay.co.kr

Korea's Job Resource and Entertainment Guide

LINK

LIBERATION IN NORTH KOREA

LINK stands for Liberation in North Korea. It is a non-profit, non-partisan, non-ethnic and non-religious group.

LINK는 북한에서의 자유를 상징하는 비영리적, 비당파적, 초인종적 그리고 비종교적인 단체입니다.

www.linkglobal.org
Seoul chapter : linkseoul@gmail.com

Meetings every 1st and 3rd Thursday of the month, 7p.m.
회합 매 월 첫번째 세번째 목요일, 저녁 7시

Cross Word Answer

ACROSS

1. deport
4. penna
5. attitude
7. reckon
12. favorable
14. naive
18. coincidence
19. hagwon
20. frenzy
23. gibbs
24. alternative
26. dwell
28. throng
29. unique

DOWN

2. oneshot
3. talent
6. diversity
8. cunning
9. prim
10. fighting
11. metropolitan
13. alumni
14. notebook
15. fisherman
16. pocketball
17. sermon
20. fertilizer
21. mutual
22. sarcastic
25. vinylhouse
27. artificial

Beautiful Store

A warm neighborhood, Beautiful Store is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works for a more sustainable and sharing society. We sell secondhand goods donated from citizens, and shares the profits with our neighbors living in difficulties in our society.

Beautiful Store is always waiting for your contact.
Tel. 02-3676-1004
Email give@beautifulstore.org
Website www.beautifulstore.org

If you love Arts and Books, visit our special stores:
Art Shop, Beautiful Store Hong 아가홀 02-338-4236
Used book Store, Bounaunum 보나움 031-955-007

whatthebook.com

Largest retail used bookstore in Korea

Largest selection of English books online in South Korea

WHAT THE BOOK?
ANOTHER BOOKSTORE
HALL BOOKS
HALL BOOKS
HALL BOOKS

www.whatthebook.com
02-797-2342

You can pick up a copy of DDD at the store

Student Writing / 학생독후감

Should People Marry?



By Park Byoung Hee and "Che" Kim

Byoung Hee says....

Nowadays, many people do not want to marry. I often hear this on TV news and in newspaper articles. Some experts suggest that because of this alarming trend, the Korean population will decrease years later. Accordingly, this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Why do people dislike marriage? It is because marriage has some disadvantages. Raising a child takes up a lot of money. Therefore, some people must work hard to spend time with their children. Moreover, there is no reason to marry if they do not have a child. And that is the most important reason why people do not want to marry.

However, staying single also has disadvantages. Above all, if they are single people will be lonely and this sometimes drives people to suicide. Secondly, they will be deprived of meaningful purpose in life, such as pride in their child or loyalty towards family. Some people believe that they do away with joys in life, but I disagree. If anything, this makes our society too individualistic.

So remember that what makes people happy in life is the family, the only place where people find comfort and pride. That is why one should marry if they can.

"Che" Kim replies...

I know this student and many students like these. They don't really believe this truly with all their mind and heart. Students will just say anything that the teacher wants to hear so that they can get into SKY (Seoul, Korea and Yonsei universities). These schools are the prestigious ones.

Park Byoung Hee is in the twelfth grade of high school in Busan.

"Che" Kim is in the twelfth grade and currently studying English in New Zealand.

결혼은 필수조건인가?

작가: 박병희, 김 "체"

병희가 말하길...

나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않는다는 사실을 TV뉴스나 신문기사에서 자주 접한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 충격적인 트렌드 때문에 한국 인구는 몇 년 후 줄어든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것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 부정적일까? 그것은 결혼이 갖고 있는 몇몇 단점들에 의해 기인한다. 아이를 양육하는데는 많은 돈이 필요하며, 따라서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위해 반드시 열심히 일해야 한다. 게다가, 만약 아이를 갖지 않는다면 결혼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이 결혼을 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그러나 싱글로 지내는 것도 단점들이 존재한다. 우선, 싱글로 지내는 사람들은 쉽게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가끔 그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둘째, 그들은 자식에 대한 자신감이나 가족에 대한 로열티와 같은 의미있는 인생의 목적을 박탈당하게 된다. 몇몇 사람들은 결혼이 그들이 삶의 즐거움을 빼앗아간다고 믿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세상은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사랑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을 명심해라.가족은 사람들이 인정과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장소인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이유이다.

김 "체"가 대답하기를...

나는 병희와 이외의 많은 학생들이 위와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고있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다.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고 그 결과로 SKY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입학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SKY는 가장 좋은 대학교들이다.

박병희는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김 "체"는 현재 뉴질랜드에서 아학연수를 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Brought to you by Subway
서브웨이를 당신을 초대합니다.

FRESH WAY

SUBWAY®

신선함이 가득! 써브웨이를 가는 길!

자연그대로의 신선한 재료! 다양한 토핑으로 누리는 먹는 즐거움!
기름에 굽지도, 튀기지도 않은 Cold-Cut! 스타일!
저지방, 저칼로리, 저콜레스테롤~ 3저 법칙!

Home Made Bread **Cold Cut Style** **Order to Made** **Diet**

매장에서 직접 구운 신선한 빵 굽거나 튀기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신선한 재료 내 맘대로! 내 스타일대로! 저지방, 저칼로리! 맛있는 다이어트

한국써브웨이인터내셔널(주)
www.subwaykorea.co.kr
TEL 02-583-2352

DDD Style page

아름다운 삶=도시안의 멋진 예술품!
나라안의 자연스러움! 그리고 무대위의 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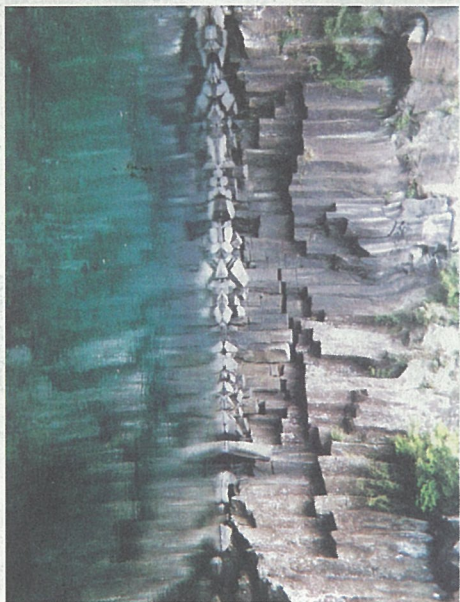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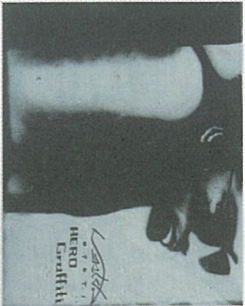


Photo by Mix Moon



Cety Gallery



Cety Gallery



Cety Gallery



Cety Gallery

Beautiful life=Graffiti in the City!
Nature in Country! and Fashion on the Catwalk

DEED

ENIS ADAM LAUCILIA
A BIRINCIL A

The Times,
They are changing

